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04 1982년 4월2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pril 22, 1982

APR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행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교포소녀납치윤간

범인은 한인청소년·LA교민떠들썩

(LA지사) 교포소녀 3명을 연속으로 납치, 강간한 혐의로 한인청소년 6명이 14일 LA특별수사반에 체포됐으며 경찰수사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3건 이외에도 지난 한해동안 20여건의 집단납치및 윤간사건이 한인 청소년들에의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LA경찰및 청소년문제 관계자들에 의하면 피해를 당한 소녀들은 강간을 당한 후 부모나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며, 강간범들은 피해자의 이와같은 취약점을 이용, 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수사당국자는 이번에 발표된 집단강간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경찰은 그동안 일어난 다른 강간사건들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검거된 한인청소년들은 모두 20세미만의 미성년으로 지난 3월27일과28일 13세,16세의 한인소녀를 각각 납치, 집단윤간했고 29일에는 데이트중인 한인청소년과 여학생을 납치, 폭행후 밴트럭으로 공원뒷산으로 끌고가 강간했다.

체포된 혐의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과 배경을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를 진두 지휘했던 로버트·마틴수사관은 체포된 청소년들이 K·K(코리언·킬러)단의 멤버로, K·K단에는 현재 약 1백~1백50명의 단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납치및 폭행, 집단 윤간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인청소년들—14일 LAPD 불량배단속반(CRASH)에 연행된 한인청소년들(사진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LA서부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의 심문을 받고 있다.〈박희서기자 찍음〉

홍중표씨(맥스협회장) 피선

동양계 유일의 경찰 불평불만위위원으로

홍중표 맥스·밀크 프랜차이즈협회장(41)이 메트로·토론토 경찰에 대한 불평불만위원회(Public Complaints Commission) 위원으로 선정됐다.

홍회장의 피선은 지난6일 메트로의회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통과했고, 16일 의회 본회의에서 다른 7명의 후보자와 함께 최종 결정됐다.

◇홍중표위원

어느정도 인종적 고려하에 선정된 위원들은 한인사회를 대표한 후보자와 함께 흑인2명, 이태리안1명, 유태인 1명및 여자 1명으로 동양계로는 홍위원이 유일하다.

시의원들은 약3개월전 약1백명을 후보자로 추천했고 의회사무국은 서류심사로 이중 30명을 선정했다.

의회집행위원회는 이들과 면담, 이중 8명을 최종적으로 뽑아 본 회의에 추천한 것이다.

"에트닉간에 경쟁이 치열했으나 비교적 소수민족인 한인사회에서 대표를 뽑아준것은 내가 유지해온 정치인들과의 교분도 이유가 됐겠지만 그만큼 한인사회의 비중을 높이 평가한것으로 본다. 앞으로 한인들의 경찰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데 크게 노력하겠다"고 홍위원은 16일 말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을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된 불평불만위원회는 시의회 임명자 8명 등 총24명으로 구성됐다.

온타리오주정부및 토론토 정계인사들 사이에 제이·홍(Jay Hong)으로 통하는 홍위원은 작년 3월13일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윌리엄·데이비스주수상 초청 베커및 맥스밀크·스토어 합동파티 때 사회를 보았고, 한인 대표로 연설, 상점주들의 단결된 모습을 수상 마음에 깊이 새겨준 장본인이다.

그는 또한 맥스·밀크 프랜차이스 상점주들을 조직화, 맥스 본사와 강력히 대항해서 많은이권을 되찾는 원동력이었다.

금년 봄부터 홍위원은 온타리오주 복합문화자문위원으로 봉사했었다.

68년 캐나다에 와 토론토대학에서 금속학석사학위를 받은 홍씨는 77년부터 토론토한인장로교회의 장로직을 맡았다.

그는 한인사회와 관련이 많은 공직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크게 관심을 모은다. 〈관련기사 2면에〉

보석금 50만불 집단강간 5명 구속

(LA지사) 8명의 집단강간혐의자를 체포한 LA경찰은 15일 이중 3명은 혐의가 없어 석방하고, 나머지 5명을 구속 입건했다.

이들 5명에대한 보석금이 1인당 50만달러로 결정됐다.

강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3년~최고8년까지 복역케되며, 납치의 경우 최소3년~최고7년의 형을 받는다.

〈스포츠 퀴즈〉

금년도 NHL 우승팀은?

13일까지 NHL플레이오프 1회전을 치러 8팀이 선정됐으나 금년도 NHL우승팀 예상은 점점 미궁에 빠져든다.

오일러즈, 캐네디안등이 떨어져 나가고 다크호스 미네소타, 위니펙도 자빠졌다. 아일랜더즈만이 겨우 명맥을 잇고 있으나 결코 순탄하게 보이질 않는다.

정답은 오는 4월27일까지 본사 편집부로 보내면 된다. 이 때는 이미 2차전까지 치러 4팀으로 줄었을 때이므로 정답확률은 아주 높아질 수 있다.

정답자중 2명을 선발 브랜돈 스포츠사(대표 이건영)가 제공하는 테니스슈즈 1켤레 또는 골프용구가 각각 증정된다. 이 밖에 탈락된 20명에게는 대한항공(KAL)이 제공하는 야구모자가 증정된다. 정답자가 적으면 주상품은 다음회로 넘어가고 야구모자는 20명을 선발, 증정된다.

. 응모방법은 우편에 한해 접수하며 27일 소인분까지 추려진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집행부·자문위원등 위촉

서울올림픽후원회 조직 끝내

재 캐나다 88년 서울 올림픽후원회는 20일 집행부및 운영위원, 자문위원단을 구성, 서울 여름올림픽과 캘가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한국선수단 후원계획을 진행 시키고 있다.

함의현 회장은 "캐나다는 76년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어 모국서도 특히 관심을 갖는 곳이다. 우리는 힘을 합해 민족적 과업인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원회의 고문은 이규현 주 캐나다대사이며 자문위원중에는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도 포함됐다. 부회장은 김희수(상점경영), 이영현(무역협회장)씨이다.

★고문 : 이규현 대사

★자문위원: 이상훈(토론토총영사), 고종옥(토론토천주교주임신부), 전택균(전 한인회장·81년 민족상 수상자), 최승낙(캐나다외환은행장), 이준식(토론토무역관장), 이근우(승공협회장), 안병원(음악가·전 숙대교수), 김문량(전 한인회장), 강신봉(한인총연합회이사장), 한상훈(한인신용조합장), 이상호(전 연세대동창회장)(무순)

★운영위원: 박인순, 조한철, 최동주, 김만구, 이상구, 장순채, 조영호, 원장호, 원경신, 김효, 이병권, 황대연, 박주삼, 이형인, 차선경, 이창복, 조기현, 천융기 (무순)

★집행부:
회장 함의현
부회장 김희수, 이영현
사무총장 이 갑
기획실장 권병현
조직부장 최이락
대 한국부장 장추신
섭외부장 박대현
홍보부장 송관헌
재무부장 김영철
사업부장 김무웅

〈로미오와 줄리엣〉등공연

국립발레단 봄철스케줄확정

캐나다국립발레단의 봄철 공연계획이 확정됐다.

5월5일부터 23일까지 오킵·센터에서 있을 국립발레단의 공연작품은 〈나폴리〉〈라·실피트〉, 〈워싱턴·스퀘어〉〈로미오와 줄리엣〉등이다.

입장권은 오킵·센터 매표소(Box office, Front ST. E., Toronto M5E 1B2)나 각 예매처, 혹은 전화로 예매 가능하다.

티켓은 $5,00에서 $22,00까지로 자리마다 프로마다 각각 값이 다르며, 학생과 노인들은 20%로 할인된다.

스케줄과 시간 티켓은 전화 698-2626으로 문의하면된다.

◆국립발레단의 공연모습

영화〈종군수첩〉방영 24일(토) 아침 채널 79

토론토한인회 산하 TV한국은 이번 주말 2시간반짜리 한국영화 〈종군수첩〉을 방영, 일반의 시청을 권하고 있다.

오는 24일(토) 아침 8-10시30분 City TV(채널 79)로 나가는 이 문제작 영화는 MTV가 세계각국의 명화를 추려 채널 79를 통해 차례로 소개하는 특별프로 시리즈 「세계영화」(World Cinema)중 한국편 특선영화로 한인회, 실협, 체육회, 미도파가 스폰서이며, TV한국 제공으로 나간다.

영화 〈종군수첩〉의 줄거리는 — 대학생등반대가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한다. 대원1명을 희생시켜야 전원이 살 수 있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전원사망의 위기에 처하자, 등반대장 학생은 한 학생이 매달린 로프를 끊어 그를 희생시키고, 나머지 대원들을 살아나게 했다.

무사히 돌아오자 대학 캠퍼스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간다. "저희들이 살아남으려고 학우를 희생시키다니!"

그 무렵 한 여인이 등반대장 학생에게 전사자의 종군수첩(유고)를 건네준다. 수첩의 내용은 전체(전우들)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자원한 전사자의 메모들이었다.

전사자는 등반대장의 결행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의사 전면파업 강행할듯

주정부와 진료비인상협상 난관

주정부와 인상에 합의를 보지못한 온타리오의사들은 4월마지막 주일에 2일간, 5월 첫주에 3일간 각각 전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온타리오의료협회(OMA) 간부들은 19일 만장일치로 정부안을 거부, 지난주 시작된 순번제 파업을 강행한다.

의사들은 4월27일,28일과 5월5,6,7일 위급환자이외에는 받지않는다.

한편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래리·그로스맨보건성장관은 의사들이 파업위협으로 정부가 줄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과의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에 불구하고 정부가 파업중단 명령등 강제수단은 쓰지 않을것 이라고 그로스맨장관은 말했다.

OMA는 최근 수일간 의사들의 임금인상요구 조건과 그 이유를 각 언론에 광고, 지지를 호소해왔고 정부는 OMA의 요구가 지나치다면서 일방적 제안을 내놓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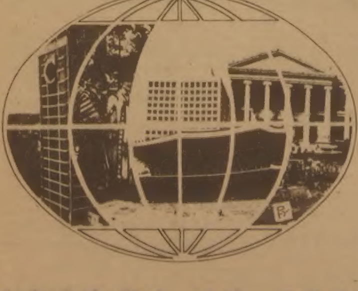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 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투자결정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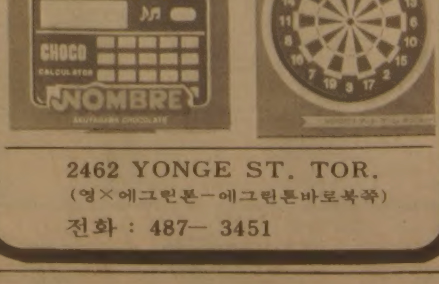
IATA
어디로모실까요?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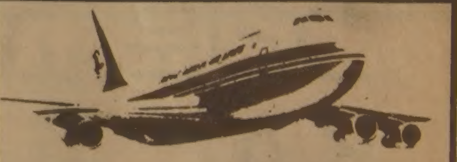
한국인의
꽃·화초
도(소)매상
◎토론토 제1의최대규모
⊙가장 저렴한 가격
도매상장소 / SHERBOURN ST. / BLOOR ST. E. / 메디칼센터
☎ : 923-9948

BROOKVIEW CONFECTIONS INTERNATIONAL Inc.
○인기집중(일본으로 부터 수입
○어린이, 어른들을위한 초코렐
○각종(계산기·카메라·장난감 라이터형등)모형의 초코렐이 있읍니다.
○술이 포함된 초코렐등.
※소매하시는분 에게만팝니다.



2462 YONGE ST. TOR.
(영×에그린톤—에그린톤바로북쪽)
전화 : 487-3451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경찰 불평불만위원회란?

차별·부당대우 조사의뢰기구

경찰에게 모욕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때 특히 소수민족들은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울분을 삼키는 수가 많아 지난해 12월21일 온타리오주정부는 경찰이외의 인사인 시드니·린든(Sidney Linden)씨를 탄생할 시민 불평불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밑에 3명의 풀·타임과 2명의 파트·타임조사관도 아울러 임명했다.

이들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불평을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우선 조사관은 시민불평의 개요를 경찰국에 통고한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일내에 보고서 사본을 불평위원회와 신고한 시민에게 보낸다. 린든 조사위원장은 "대부분의 불평건은 이 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만일 해결이 안되면 중간보고서가 보내진 30일안에 경찰국은 두번째의 보고서를 린든, 신고 시민과, 경찰국장 (잭·아크로이드 : Jack Ackroyd)에게 보낸다. 경찰국장은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다. —

이경우 문제의 경찰관은 형법 또는 경찰법에 의해 기소되거나 견책을 당한다.

불평신고 시민은 그가 고발한 경찰관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서면으로 통보 받으며, 이에 대해 만족치 않으면 린든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단계까지 오면 린든은 경찰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인수하고 조사관은 면밀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관은 제3자의 증언을 듣고 모든 도움이 될만한 증거를 수집한다. 이같은 조사에도 불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청문회에 넘겨진다.

이때 홍중표위원등은 청문회를 사회, 최종결정을 내린다.

린든위원장은 동 조사위원회가 생긴후 경찰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괄목한 만큼 달라졌고 앞으로 경찰과 소수민족간의 관계가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는 그간 460건의 불평을 접수했다.

청문위원들의 대우, 임기등은 앞으로 주정부가 결정한다.

홈·커밍은 표절
헤이군·하디 피소돼

▲연주가 헤이군·하디.

캐나다의 유명한 연주가 및 작곡가인 헤이군·하디의 대표곡 〈홈·커밍〉(The Homecomig)이 표절시비로 10만달러 소송에 걸렸다.

애초에 살라다·홍차(Salada Tea)의 TV광고용으로 헤이군·하디가 만든 홈·커밍은 6년전 발표된 이후 캐나다에서 폭발적인기를 얻은 감미로운 곡인데 역시캐나다 작곡가인 작고한 곤도스씨의 〈A단조주제의 변주곡〉을 표절한 것이라는 것이 곤도스씨부인의 고소이유이다.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는 헤이군·하디는 자신의 악단과 함께 청명하고 감미로운 연주로 세계가요계에 독특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음악가이다.

〈컴퓨터사식기〉

키보드로 자동문선·자동식자
글자 크기 16종, 속도 10배 빨라

◆컴퓨터사식기의 전모

본사가 도입, 가동중인 컴퓨터사식기(※한국일보 4월15일자)는 식자기를 이용, 문선(재래식 방법으로 활자를 뽑아냄)및 식자(뽑아낸 활자를 인화지에 찍음)가 CRT의 자판(키보드)을 두들김과 동시에 연속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것이다.

입력장치로 CRT(음극선관), 처리장치로 특수소형 컴퓨터(마이크로·프로세서), 출력장치로 모노타이프와 전산사진 따라서 CRT의 자판을 익히면 자동문선과 식자가 이루어진다.

또 타자치는 속도로 문선과 식자가 이루어져 종래 숙련된 문선공이 1시간에 1천자정도 밖에 뽑을수 없는 자수를 이의10배에 달하는 1만자를 거뜬히 처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오타(잘못처짐)를 CRT의 화면(디스플레이)에서 직접 교정, 교정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 전산 사진식자기가 완성 됨으로써 오프세트 인쇄를 위한 사식시간을 크게 줄일수 있게 했다. 또 한글 영문숫자는 컴퓨터의 독특한 글자체가 아닌 완전한 인쇄체 글자인데다 글자 크기를 신문활자체의 8가지와 잡지 인쇄체인 5포인트에서 72포인트에 이르는 16가지단계의 크기까지 자유자재로 변경시킬수가 있어 신문은 물론 잡지에 곧바로 활용할수 있다.

종래의 문선, 조판방법과 비교하여 볼때 4·6배판 2배페이지 정도의 책을 만들려면 200자 원고지 약2천장이 소요된다. 이럴경우 활판 인쇄를 하기 위한 문선은 1인1일 평균50장 정도밖에는 처리할수가 없으며 사진식자의 경우 80장정도이다. 그러나 본 전자동사식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1인1일 평균500장 정도를 생산할수가 있다 4·6배판 200페이지를 완성시키지 위해 활판인경우 40일, 사진식자기일 경우 25일, 자동사식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4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한권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원고지는 약2천장.

○「한글전자동컴퓨터식자기의특징」

★입력은 타자기를 치듯 편리·신속.
★자판을 익히기가 간편.
★글자판을 바꾸어 줌으로서 가로 또는 세로쓰기로 사용.
★글짜의 크기는 자동변경(5포인드~72포인트, 16가지)
★CRT화면을 통하여 편집을 손쉽게 한다.
★CRT화면을 통하여 교정.
★행말·행간·스페이스등을 자동조정.
★한글과 영문을 겸용.
★작업능률은 종전에 사용되던 식자기보다 10배(시간당16,000)

컴퓨터 시스템 견학

『안녕하셔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경왔어요.』

『영이와 철이 잘 왔어요. 이 방안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알고 싶어요?』

『저 T.V.처럼 생긴 것은 무엇이어요?』

『그 바로 밑에 키 보드가 있어요. 거기 있는 키를 치면 스크린에 찍은 글씨가 나와요.』

『어떻게 글씨를 쳐요?』

『손으로 글씨를 쓰는 차례와 똑같아요. 모음, 자음, 받침의 차례로 글씨를 쳐요.』

『얼마나 빠르게 글씨를 쳐요?』

『잘 치는 사람은 1분에 500자를 쳐요.』

『글씨를 다 찍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글씨를 찍을 때마다 스크린에 나오는 것과 함께 테이프에 구멍이 뚫려 나와요.』

『구멍이 어떻게 뚫려 나와요?』

『글씨마다 다르게 뚫려서 나와요.』

『그 테이프는 무엇에 써요?』

『그 테이프를 특수 소형 컴퓨터에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해요. 예를 들면 글씨의 크기, 한줄의 글씨 수효, 줄과 줄사이의 간격등을 알려 주어요.』

『기계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럼요. 명령하는대로 일을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현상기가 자동적으로 현상하면 신문이 되도록 모아 붙여서 사진을 찍어 인쇄해요.』

『야!! 굉장하군요. 그럼 처음부터 신문이 될 때까지를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지요.』

이 어린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번에 신문사에 새로 들여온 컴퓨터 시스템을 구경하였어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도 구경오셔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한 국 일 보
533-2361

〈소 론〉

차원다른 사회가치관

박 찬 도

세상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본질을 보는 방법과 상황을 보는 방법이다. 그것은 마음을 보는 방법과 행동(현상)을 보는 방법이요, 욕구상태를 보는 방법이다. 즉 원인가치를 보는 방법과 결과가치를 보는 방법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복잡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나아지기도 하고, 못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나아지고 못해지는 것에 따라 낙관도하고, 비관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적은 것이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인과요인이 많이 달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원의 결핍요인, 복잡한 심리요인, 경제요인,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상황요인등 여러가지 요인에 인한다 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가피적, 또는 가변적인것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된다. 크게 좋아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보다는 원인가치, 본질가치, 마음, 욕구상태가 어떻게 얼만큼 나아지느냐 못해지느냐에 문제의 관건이 있다.

우리는 상황이 못해졌다고 실망을 많이 하는 수가 있다. 그것이 정말 못해진 것 아닌데, 못해진 것같이 느껴지는 것(오해하는것)뿐일 수 있다.(그런것이 상황을 더욱 못해지게 하는 심리요인이기도 하다.)

상황은 나아졌으나 본질은 못해질 수도 있고, 상황이 못해졌으나 본질을 나아질 수도 있다.

같은 값의 상황적 제 요인상태로서 혼란과 파멸이 와야 마땅할만할 때 이를 찾고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본질)이 이루어지느냐 않느냐만이 '가장 가치있는 관의 태도이다.

나는 본질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향상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자유가치 공정 이기심가치(이타심 강화·사랑의 증대)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본질가치를 더욱 우리 마음에 늘리느냐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자유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이치를 인식(이해)하는 일이요, 인식케 하는 일이다.

그 방법은 자유인식을 위해 자유를 알리는 일이요, 자유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자유를 덜 요구하는 (덜 앞서는) 일이다.

〈참고〉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넘치지 않고, 처지지 않는 표준자유, 즉 책임(또는 자제)을 뜻하는 것이다.

당분이 피로解消에 無益

〈보스턴-UPI〉 마라톤이나 자전거경기와 같은 장거리운동을 할 때 피로회복제로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지구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최근에 예일대학의 연구조사에서 밝혀졌다.

어린이들을 家事일에…·

몇가지 戰略을 소개한다

주부들의 할일은 너무나 많다.

요리에서부터 마당손질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들을 세세히 분류하기시작하면 셀수없을 정도로 일이 불어나게된다

게다가 많은 이민가정의 주부들이 직장여성임을 감안하면, 주부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이 지워져있음을 알게된다.

주부가 직장여성이건 아니건간에, 집안일을 남편및 아이들이 함께 나누어 한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바람직하다.

주부의 짐이 덜어질뿐아니라, 가사일을 함께 도우므로써 가정에 대한 귀속감, 책임감을 갖게되고,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경우 대개는「집안일은 엄마가 하는것」이란 고정관념을 갖고있기마련.

어린이들을 가사일에 참여시키기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우선 집안일을 실내일과 옥외일로 자세하게 나누어 목록을 만든다.

즉 화단청소, 나무잎청소, 드라이브웨이청소등으로 세분한다.

이 일은 또 매일같이 해야하는 일과 정기적으로 해야하는일로도 구분해놓는다.

리스트작성이 끝나면 임무분배를 위한 가족회의를 연다.

일분배에 있어서 성에따른 고정관념은 버릴것.

자신들이 하고싶어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남는 일들은 공평하게 분배한다.

아이들에게 가사일을 시키기 힘든 이유중 하나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같은 일에 곧 싫증을 내는것.

몇주에 한번씩 책임분야를 바꾸어주어 가사일에 싫증을 내지않게한다.

그렇게되면 새로운 일에 또 흥미를 느끼게되고 한편으로는 남의 사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된다.

어른들이 일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어린이들에게도 보상이 있어야한다. 물론 애정이 가장최고의 보상이지만, 어느정도 아이들이 크게되면 애정만으로는 모자라는 단계에 다다른다.

이때 가장좋은 보상은,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돈은, 나쁜일을 하고 얻는 뇌물과는 다른 것이므로 어린이에게 해가 되지않는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돈만 건네주지말고 애정을 함께 표시해야하는 점이다.

▲가사일의 격무에 시달린 주부! 자녀들에게 가사일을 분배해주는것은 엄마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형성 에도 도움을 준다.

하고싶은일 선택하게, 남은일은公正분배
屋內·外를 細分…性구별말고 돌아가며
"착한 일에 補償" 적당히 돈주고칭찬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보면, 6살정도의 아이라면 자신의 침대정리, 자신의 장난감정리, 새 먹이 주는일, 디너테이블 세팅, 식사후의 정리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5센트씩 주면 일주일에 2달러 좀 넘는 용돈을 갖게된다.

만약 아이들이 좀더 많은 용돈을 원한다면 가사일을 좀더 늘려주도록.

도표를 만들어 책임완성여부를 표시하면 효과적.

만약 아이들이 일을 엉망으로 했다고 느껴져 화를 내었다면 곧「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일을 배우도록 도와주려는것 뿐이다.」라고 사과토록.

아이들이 해야할 방청소를 안했다든가 할때에는 청소를 할때까지 방에 있도록 하라.

방에서 울더라도 무시하고 있으면 스스로 청소하고 나오게 마련이다. 육체적인 벌은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피하는 결과만 갖고와 좋지않다.

아이들이 일자체가 하기싫거나 또는 놀고싶어 하지않겠다고 할때에는 그일을 원하지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면서「그러나 이일은 누군가가 해야하는것」임을 깨우쳐주도록한다.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31-4607
신 세 계 여 행 사 536-2155
서 울 여 행 사 535-6004
제 일 여 행 사 535-2377

제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금주말(24일)로 박두!

◇남국적 마스크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후보 제1호 석인혜양

◇발랄한 발레·테니스가 장기인 후보 제11호 박은희양

◇꽃꽂이 명수, 간호원 지망의 후보 제10호 이용원양

◇꾜마 피규어 챔피언이던 후보 제9호 윤혜련양

◇학교 팻션쇼에 모델로 출연한 후보 제8호 안주영양

◇자기가 만든 꽃을 벗삼은 후보 제2호 김선미양

미인대회 후보들 그 미의 진단서

4월24일 하오6시 토론토 시청뒤 다운타운 Holyday Inn에서 열리는 82년도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출마자는 11명으로 확정됐다.(신청마감 17일)

이들 11명의 미인후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통계가 나온다.

타 대회와 다른 점은 타주출신이 전혀 없고, 전원 온타리오주 거주자인 점이다. 과거 각대회때마다 몬트리얼, 뱅쿠버, 에드몬톤, 위니펙, 런던등의 출마자가 1~3명씩 있었는데 올해 대회는 전원이 메트로토론토 출신이다.

학력및 직업별로 따지면 2명만이 직업여성(사무원)이고, 나머지 9명은 전원 학생이다. 그중 고졸, 대졸, 대학재학생이 각 1명이고 고13년이 가장 많은 5명, 제일 어린 학생은 고교10년생이다.

이들의 나이는 최연소 17세가 2명, 최연장인 22세도 2명, 가장 많은 동갑나기는 19세 4명이다. 11명 후보의 평균연령은 19.4세.

이들의 특기는 피아노, 미술, 무용이 각2명이고, 태권도, 웅변, 조화, 연기, 스키, 꽃꽂이등이 각1명으로 되어있고, 취미중 특이한 것은 골동품 수집, 조각, 시짓기, 여행이다.

장래 희망을 보면, 심리학자, 경제가, 변호사등 지망이 다양하다.

신체조건을 분석하면 신장(키)이 161cm가 가장 작고, 최장은 169cm, 평균신장은 164cm로 비교적 큰셈이다.

몸무게는 가장 무거운 아가씨가 127파운드, 가장 가벼운 아가씨는 96파운드로 평균체중이 110파운드이다.

가슴둘레는 최장 36인치, 최단32인치이며 평균 34.5인치, 허리는 최장 27인치, 최단 21인치이며 평균은 24인치이다.

히프를 보면,최장 36인치, 최단 32인치, 평균 34.5인치로 가슴과 일치한다.

이번 후보들은 평균치로 볼 때 대체로 고른 신체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기준—육체미·교양·정숙도

19일밤 토론토 블루어거리의 이대한부동산회사에서 모인 미인대회 첫 심사위원회는 개인사정으로 심사위원을 못 맡게 된 구상회 박사 후임으로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장 이병권씨를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에 이석현씨를 선출했다.

또한 심사기준을 1)한복—정숙도, 2)수영복—육체미(용모 포함), 3)야회복—교양 (인터뷰 포함)의 3파트로 나누어 채점하고, 예년보다 육체미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인터뷰(대화)의 내용은 1)여행, 2)사랑, 3)장래희망, 4)취미의 4가지중 후보가 제비 뽑아 나온 테마로 사회자와 얘기를 나누도록 정했다.

◁정 정▷

4월20일자 본보 1면의 미스코리아 후보 9호 윤혜련양의 나이를 21세가 아니라 "19세"로, 그 부친 이름도 "윤재용"씨로 바로잡습니다

★제 7 회 캐나다미스코리아 후보들 진단서★

접수	이 름	나이	직 업	거주지	특 기	취 미	학력	키	무게	가슴	허리	히프	장래지망
1	석인형	18	타이피스트	토론토	스피치	수영·댄스	고졸	161	98	35	23	35	스튜어디스
2	김선미	17	학생	미시사가	조화	볼링·수영	고11	166	117	34	24	36	조화가
3	권미리	17	학생	토론토	피아노	노래·플룻	고10	160	125	34	27		피아니스트
4	이은주	19	학생	토론토	연기·그림	무용·시짓기	고13	166	105	32	23	33	심리학자
5	이사사	22	학생	토론토	미술	여행·디자인	대 3	162	100	35	24	35	미술가
6	이정숙	20	학생	토론토	태권도	팻션디자인	고13	164	127	36	27	36	디자이너
7	함승희	22	사원	토론토	스키	골동품수집	대졸	165	110	36	23	36	디자이너
8	안주영	19	학생	토론토	무용	수영·재봉	고13	169	116	36	23	36	변호사
9	윤혜련	19	학생	토론토	피아노	볼링·음악감상	고13	163	105	34	23	35	실업인
10	이용원	21	학생	미시사가	꽃꽂이	영화감상	고12	162	96	32	21	32	간호원
11	박은희	19	학생	토론토	발레·테니스	조각제작	고13	168	112	35	24	35.5	실내장식가

※키(cm), 무게(파운드), 가슴·허리·히프(인치)

◇스키가 특기, 프랑스 유학의 후보 제7호 함승희양

◇만능음악도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후보 제3호 권미리양

◇꿈꾸는듯한 순정파 표정으로 심리학자 지망의 후보 제4호 이은주양

◇"미술에 살련다"고 미술대가가 되려는 후보 제5호 이사사양

◇태권도로 다져진 몸매에 디자이너 꿈인 후보 제6호 이정숙양

Leon's LEON' S 가구점

한국인 세일즈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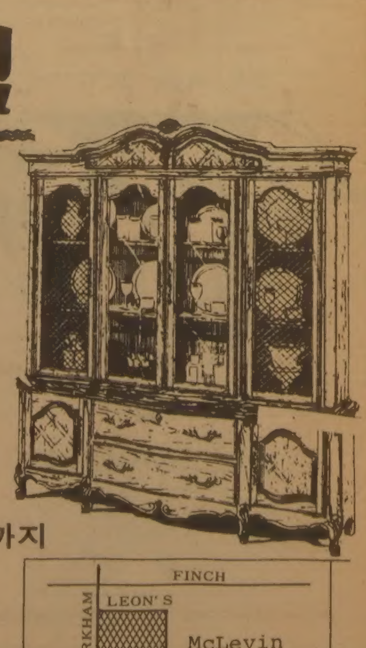
조 석 민
KEVIN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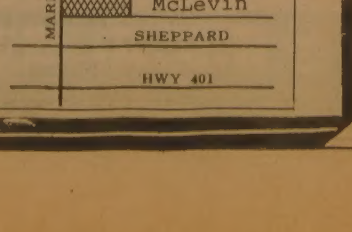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 FURNITURE
○CARPETS— 모든 카펱종류
○APPLIANCES—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새車싼값에 購入하려면…

자동차情報委 還拂制·할인제와 혼동말길

새차를 사려면 우선 딜러에 가기전에 환불제와 디스카운트를 혼동치 말아야하며 트레이드인 할 자동차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싼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경제형편을 고려, 지불할수 있는 차값을 계산해 본다. 자동차정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도 현재미국인은 가정수입의 38%정도가 자신에 적합한 새자동차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년전의 35%보다 3%가 높아졌지만 70년도와 똑같으며 60년대의 50%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

▲「에드먼드의 새차가격표」나 「1982년도 자동차 소비자가이드」등을 참조, 차크기, 안락도, 부속품, 경제성, 가격등을 고려하여 구입할 차를 결정한다.

▲사고싶은 차를 결정하면 딜러는 한군데만 가지말고 서너군데 가보는것이 좋다. 근처에 딜러가 한곳밖에 없으면 각회사별로 비슷한 차종을 비교하라. 세일즈맨이 그차는 싸구려라고 말해도 수치심을 갖지말고 원래 결정한 차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좀 더 싸게 사기위해서는 주중에 비오는 아침이나 초저녁쯤 손님이 없을때 방문하라. 계절은 이른봄이면 더욱 좋다.

차크기·안락도·部屬器·經濟性·가격고려해야
車種결정후 여러군데 딜러찾아 값比較 토록
車고장대비 같은값이면 집근처 딜러 찾도록

▲트레이드인에 대해서 미리 먼저 말을 꺼내지 말라.

그리고 될수있는한 가격을 많이 깎은뒤에는 매니저의 사인을 받아놓는것이 좋다. 그래야 매니저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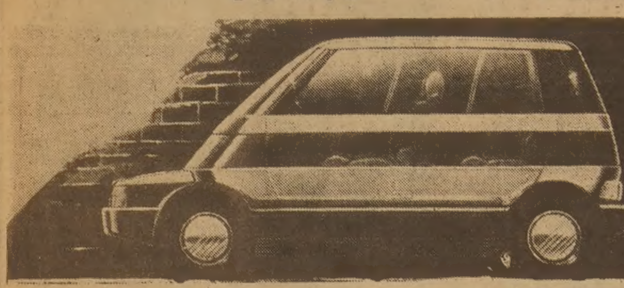
가장 합리적인 차가격은 일반차의경우 딜러가격에 75달러내지 1백25달러 정도 웃돈이 붙는것이고, 고급차는 2백50달러에서 4백50달러까지 웃돈이 붙는것이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 딜러는 집에서 가까운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딜러에서 차를 비싸게 부르면 다른딜러에서는 이값에 준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여기서 사고 싶으니 그가격에 달라고 말하라.

▲트레이드인할 자동차가 있으면 그차를 산 딜러에 가는것이 가장 좋다. 신문이나 광고를 보고 헌차값을 아는 것이 좋다.

▲자동차구입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면 한결 편리하다.

(LA지사발)



▲새차를 살때는 이상이 생길때를 대비, 집 근처 딜러를 찾는게 현명하다.

해밀턴한인회
흥겨운 친목의 밤

해밀턴한인회(회장 이영구)는 지난 17일 해밀턴 사이릴교회에서 150여 교민이 모인 가운데 흥겨운 춘계 친목의밤을 가졌다.

토론토교민도 원정 참석한 친목의 밤은 권순근악단의 반주, 김낙중목사의 기도, 이영구한인회장과 토론토 총영사관 조홍래영사의 인사및 총무보고로 1부순서가 끝나고, 2부에는 여흥이 있었다.

차동열씨의 사회로 노래자랑, 댄스에 이어 3부에는 복권추첨이 있었다. 추첨을 위한 상품에는 한인회준비 상품외에 79친목계, 이상구씨, 김대헌씨, 한밭식품, 토론토·한국일보, 미도파백화점, 블루어·하드웨어등에서 각각 상품이 증정됐고 해밀턴실협, 동우회, 해밀턴한인교회, 칠성계로 부터 금일봉 혹은 화환증정이 있었다.

대건회 바자
회관실내장식위해

토론토한인천주교회의 회관 낙성을 기하여 동교회 젊은 부부단체 대건회(회장 김병선)는 동회관 실내장식비 마련을 위한 바자를 연다.

6월16일(일) 하오2시30분 쎄인·폴성당(83 Power St.Tor.) 강당에서 벌일 이번 바자의 전시품은 음식, 음료, 아동복등 의류, 선물등 다양하다.

교민동정

◆유만춘(비지니스)=작년에 인수한 상점에서 조금씩 시작한 정원용 상품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 올봄부터는 잔디, 거름, 화학비료, 잔디씨, 씨앗, 꽃모종, 야채모종등 각종 정원용 상품을 완비, 비지니스 규모를 확장했다.

상점이름도 "Everything Store"로 바꾼 유씨는 정원일에 낯선 교민들에는 상담도 곁들인 특별할인가격으로 봉사하겠다고.

유씨의 상점은 923 Pape Ave(× Mortimer Ave.) 센테니얼·컬리지 맞은편에 있고, 전화는 465-3132이다.

◇윤석연(쌍방울메리야스대리점 경영) 버라이티가게를 만4년간 운영하다가 지난4월1일 웨스톤·멀(웨스톤×핀치)에 메리야스가게를 개업했다.

취급품목은 한국담요, 런닝샤쓰(메리야스), 홈카펫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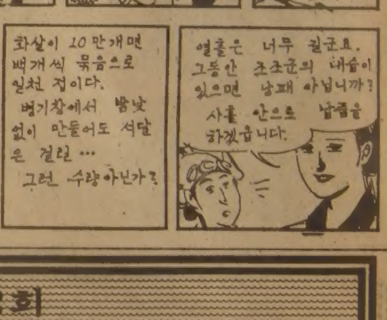
이로써 쌍방울메리야스 판매점은 블루어(송의섭씨경영) 대리점과 함께 두개가 되었다.

결혼축하

신랑 : 이인호(이기준씨 장남)
신부 : 구정애(구연원씨 조카)
때 : 5월1일(토) 오후2시
장소 :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Toronto)
주례 : 김상호 목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㉛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부리노 아스랑의 회개는 완전한 것으로 볼수 있었다. 아직도 주일날 본당미사에 참례하지 않고 있으나 그의 생활태도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그는 아무에게나 쌍스럽게 말하던 습관을 버렸다. 그는 아무에게도 공손했고, 남이 시비를 걸어와도 이제는 싸움하지 않았다. 아침일찍 일어나자 기집 앞과 주변환경정비및 청소까지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었다. 물론 식사때 반주로 포도주 한잔정도는 손님과 함께 예의상 마셨으나 자기 기분을 위해서는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조과(아침기도)와 만과기도도 빠짐없이 하였다.

부리노가 주일미사에 아직 참례하지 않고있는것은 그가 성당에 나오는것을거부해서가 아니었다. 워낙남들의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였기에 그가 성당에 다시 나옴으로써 필요이상의 화제를 만들지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부리노가 갑작스레 성당에 나온다면 말하기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에대한 근거없는 여러가지 소문을 또 퍼뜨렸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죄짓게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부리노의 신중한 배려이기도 했다. 나도 그의 그러한 의도에 찬성했다.

부리노가 나날이 변화되어가는 이면에는 나의협조도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피해 밤에 그를 여러번 방문했다. 그리고 회개에 뒤따르는 생활면의 변화를 서로 의논했던 것이다. 부리노는 우리서로 의논하고 합의본 사항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겼다.

본당신자들은 그렇게 흉악스럽던 부리노가 어떠한 과정을통해 회개하고 양순해졌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미쳐있던놈이 다른 방향으로 미쳐가고있다"고 말하곤 했다. 본당의 신부들도 부리노의 회개동기를 잘모르고 있었다. 기이에 본당신부만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었으나 부리노의 요청에 따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부리노의 회개의 시기와함께 없어진 내 수염을 보고 부리노와 나사이에 그 어떤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막연히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무렵 나의 가장큰 관심사는 어떻게하면 부리노가족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을까 였다. 우리 가톨릭적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니뭐니해도 미사다. 그런데 회개한 부리노 가족에게미사에서 오는 은총을 줄 수 없으니 내 마음은 아팠다. 물론 내가 환자가정방문을 기회로 부리노 가족에게영성체를 두어번 시켜준 일이있으나 그들도 미사에참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었다.

어느날 나는 이 문제를 기이에 본당신부에게 상의하기로 했다.

"본당신부님, 무슈 아스랑은 놀라울만치 변화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부리노가족이 주일미사에 참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수있을까요?"

"부리노 가족이 주일미사에 참례하는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있소.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부리노의 신변상의 변화가있음을 알고있으나 아직 그의회개를 의심하고 있기때문이오. 본당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나는 이대로 당분간 조용히 있을 예정이오. 부리노 가족을 위해서는마음아픈 일이지만…"

"신부로서의 사목경험이 없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열심하다는 신자들 한테서 뜻밖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게되는군요. 요즘부리노에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주일미사에 잘 나오는 신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주로 떠드는 장소가 성당 앞마당이 아닙니까. 루가복음 15장에보면 예수님 께서는 죄인 한사람이 회개할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이 기쁨을 잔치에 비유하셨는데, 이세상 사람들은 부리노의 회개를 시기하는 것같은 인상마저 주고있으니 말입니다.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럴 수 있을거요. 사람들이 흔히 성당에 나오는 출석률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신앙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과 같지 아니한 신자들을 열등신자로 보는 경향을갖게되지요. 그래서 열심하다는 신자들한테서 지금 당신이 책망하는 그러한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면을볼 수 있는거요."

"철저한 인격수양을 종교생활의 시작과 바탕으로 삼고있는 유교와 불교의영향을 받은 동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은혜와 신앙심을 종교생활의기본으로 삼고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면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읍니다."

"어떠한 점이?"

그분은 내말을 이해할수 없다는 의아한 표정으로반문했다.

"말하자면 모든것이 하느님의 은혜며, 또 그저 믿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는 인격수양도 도덕생활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기 쉬운 위험성이 있지않나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한테서우리는 도덕성의 결여와인격수양의 부족함을 보게되는반면, 맹목적으로 열심하다보면 독선적이 되기쉬운일종의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보게됩니다." (계속)

결혼 예물, 보석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SALON YOUNG
개업1주년특별봉사
토론토 최고급
ARTHUR KEITH SALON
에서 10년근무
○남·녀 컷 & 파마전문
○패티큐어·매니큐어전문
○머리염색·머리광택
○각종 미용 악세사리
※월요일·일요일은 휴일
3074 BLOOR ST. W.
(블루어× 로얄욕) 231-4285

씨름협회
발기및총회

금번 본 동호인들은 우리의 고유한 민속스포츠인 씨름을 애호하며 지금까지 몇 번 산발적인 대회를 가져오던중 뜻있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기및 총회를 가짐과동시에 캐나다체육회 산하단체로써 정식가입함으로써우리민족특유의 이스포츠를 육성·발전시키려고 하오니, 취미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앞으로 절기마다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때 : 1982년 5월1일(토) 오후2시
장 소 : 한국관(628. BLOOR ST. W.)
연락처 : 석종윤 (537-5952)
최용근 (691-7478)
발기인 : 김연수, 칠연태, 최용호, 윤종욱, 박태조, 강신용, 석종윤.

제2회
재캐나다체육회장배
볼링대회

시 일 : 1982년5월8일(토)
장 소 : PLAY-TIM BOWLERAMA
33 SAMOR DR. (더프린 × 로렌스)
종 목 : 남, 녀 개인전(참가비 : $7.00)
남, 녀 개인전 WITH 핸디
(ABC, WIBC 핸디를 적용함)
혼합전(이번 대회는 부부가 아니어도 참가할수 있음, 참가비 : $12.00)
시 상 : 남, 녀 개인전 1,2,3등
1등 ; 에뉴얼 컵
남, 녀 개인전 WITH 핸디
1,2,3등
혼합전 123, 등
남, 녀 하이씽글
연락처 : 622-0024 MR. 오
656-6601 MR. 유

주최 : 재캐나다 체육회
주관 : 재캐나다 볼링협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輸出支援策 개선
海外개발등 參與

정부는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등 무역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수출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기위해 수출지원체제에대한 지원위주의 시책지양, 産業協力차원에서의 통상외교강화, 해외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적극화와 함께 적극적인차원에서의 수입자유화정책시행등 전반적인 무역정책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徐錫俊상공부장관은 17일상오 이례적으로 상공부전직원을 모아놓고 조회에서 80년대 세계무역환경에 대비한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徐장관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할뿐아니라 국제수지방어란 문제를 안고있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바로 문제해결의 유일한 적극적방법이지만 80년대 수출정책방향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측면보다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수출을 가능케해준다는 측면에서 다뤄야한다고 강조하고 무역정책의 기본방향도 보호나 지원보다는 경쟁여건을, 통제보다는 시장기능의 자율성을,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야한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통상외교를 종전의 通商중심에서 산업협력적차원으로 고도화해서 국제분업원리에 의한 산업협력이 되도록하고 ▲수출을 LC베이스에의한 상거래보다 각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해서 사회간접자본및 플랜트건설등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술이전과 국내인력 유지부품 반제품수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클랜드 協商기미
主權인정조건 撤軍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7日=聯合】 3주째 접어든 포클랜드군도 영토분쟁은 무력대결 일보직전에서 수습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그이유로 현재 양국외교를 맹렬히펴고있는 헤이그美국무장관의 중재 노력이 분쟁당사국인 아르헨티나와 영국쌍방으로부터 호의적반응을 얻고있는 분명한 신호가 보일뿐아니라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역시 원칙상 헤이그특사의腹案과 비슷한 수습방안을제시, 뒷전에서 본격지원에 나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를 2번째 방문한 헤이그국무장관이 16일 멘데스외상및 갈티에리 대통령과 8시간이상 가진회담내용에 관한 공식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포클랜드주권을 아르헨티나에 부여하되 포클랜드군도 주변자원은 양국이 公有하는 타협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아르헨티나측은 금년말까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군도의 주권을 획득한다는 조건으로 15일내에 포클랜드점령 아르헨티나군을철수시킬것이라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ABC보도). 한편 유럽여행을 도중에서중단하고 뉴욕으로돌아온 케야르유엔사무총장은 당분간헤이그장관의 중재노력을존중하겠으나 주권문제는 그대로두고 아르헨티나는 먼저撤軍하고 일정기간 유엔이과도통치를 한뒤에 쌍방에 합당한 협상을 거쳐 주권을 아르헨티나에 넘겨주는 이른바 누기니方式을 검토하도록 실무자에 지시한것으로 전해졌다.

「敬老」푸대접團束
罰金·운행정지도

치안본부는 17일 경로우대증을 가진 노인들을 푸대접하거나 승차를 방해하는등의 횡포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제가 일부 운수회사의 운전사, 안내양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어 노인들을 섭섭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단속키로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노인에 대한승차거부▲불친절▲승차기피▲요금징수 행위이다.

경찰은 버스정류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거나 신고에 의해 단속을하게되나, 경로우대증을 갖고 이같은푸대접을 받은 노인이 각 경찰서또는 각 교통관제센터 (각局500번)에 신고하면 단속을하게 된다. 노인푸대접으로 적발되는 시내버스는 2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으며 노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았을경우는이와함께 2일간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받게된다.

장티푸스 注射맞고
쌍동이中學生 숨져
剖檢…약變質여부도 감정

17일 상오8시께 서울九老區禿山洞山60의27 金忠湖씨(45·군인)집 건넌방에서 잠자던 장남秉璋군(14·江西中2년)과 차남秉珏군(14·〃)이 의식을 잃고있는것을 어머니 尹大新씨(44)가 발견,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이날 숨진 두소년은 전날인 16일상오 학교운동장에서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맞은후 오전수업을 마치고 하오2시께 귀가했는데 어머니 尹씨에 따르면 秉珏군은『머리가 아프다』며 낮부터 잠을잤고 秉璋군은 TV를본후 하오10시께 잠자리에 들었다는것. 어머니 尹씨는 이들이 아침이돼도 일어나지않아 방문을 열어보니 秉璋군은 쪼그려 앉은채 이마에 손을 짚고 입에 거품을 물고있었고 秉珏군은 반듯이 누운채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고 몸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있었다고 말했다. 江西중학교는 접종 하루전인 15일 九老보건소(소장 朴贊薰)로 부터 양호교사 權福順씨(28)입회하에 장티푸스예방접종약 2천5백명분과 자동주사기를 받아와 주사약을 냉장고에 하룻동안 보관한후 16일상오 양호교사 權씨가 인근 조산소 간호원2명과함께 전교생 2천2백여명에게 주사 했었다. 한편 九老보건소관내에서는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지난 1일부터 1천4백여명에게 접종해왔는데 부작용은 없었고, 숨진 소년과 함께접종한 江西중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17일하오 현재 부작용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사부 당국은 백신의 변질여부를 가리기 위해 쓰다남은 백신을 수거, 국립보건원에 감정의뢰했다.

술의世界 너무들 마십니다
─「酒道」는 없고 「酒量」만 있다

술을 덜마시자. 한국남자들이 폭음하는 습관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옛날에는 좋은술도 많았고 주도(酒道)도 자랑하는 동방현자의 나라였으나 최근세기에 들어와 해방─6·25등 격변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된일인지 이유없이 술을 과음하는 풍조가 굳어버렸다. 폭음하거나 과음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버릇이기도 하지만 가정불화의 씨가되기도하는 사회의 암이 아닐수없다. 술의 맛을즐기고, 마시는 분위기에 취하는 주도의 정립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온게 아닐까.

密輸事犯처벌 強化
旅券제한등 行政조치병행
소속業主까지 制裁하기로

정부는 財政수입과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는 密輸행위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키위해 밀수행위자에대한 刑事처벌외에 행정적인 制裁를 倂科하는한편 內國人여행자의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旅券발급의 제한, 여권회수, 出國금지조치를 취하는등 關稅事犯에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했다. 이에따라 국무총리실은 17일 관세사범중 巨額 또는 상습적인 밀수사범에대해 행정制裁를 병과하고 업무와관련 밀수行爲者를 처벌하는한편 業主에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關稅事犯에대한 새로운 행정제재지침을 마련,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業務관련 密輸행위 制裁내용

行爲者	制裁 내용	違反 기준
관세사 통관업자 통관법인	1년이하의 업무정지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해 밀수에 관여한때
〃	등록및허가취소	밀수에 관여할때
특별保稅운송인 簡易운송인	1년이하의 영업정지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해 밀수에 관여한때
〃	지정취소	지정보세운송인이 밀수에 관여한때
특허보세구역 設營人	1년이하의 물품반입정지	사용이 본인의업무에 관여한때
〃	특허취소	設營人이 밀수에 관여한때
港灣운송사업인	1년이하의 영업정지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해밀수에 관여한때
〃	영업취소	사업인이 밀수에 관여한때
港灣부대사업자	6개월이하의영업정지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해 밀수에 관여한때
〃	영업취소	사업자가 밀수에 관여한때
오퍼商 수출입업자	1년이하의 영업정지	관세포탈액 300만원이상 범칙물품원가 500만원이상
〃	등록·허가취소	上記기준의누범
수입實貨主 수출물품제조업자	1년이하의관세제도상모든특혜지원의일부또는전부중지	관세포탈액 300만원이상 범칙물품원가 500만원이상
〃	1년이상 2년이하의 관세제도상 특혜중지	上記기준의누범

개정된 關稅事犯제재기준에 의하면 外航船이나 항공기승무원이 밀수한 경우 犯則時價가▲1백만원~3백만원미만의 初犯에겐 3개월동안 外航을 금지시키고▲3백만원이상의 初犯이나 범칙시가 50만원이상 2백만원까지의 累犯에겐 6개월의 外航금지조치를 과하기로했다. 또 2백만원 이상의 누범자에게는 1년간 外航을금지시키는한편▲수산물운반선의 3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의 물품을 밀수한 累犯이나 1천만원이상 1천5백만원까지의 初犯의 경우 해당선박의 외항운항을 3개월간 제한키로했다. 수산물 운반선에의한 1천만원이상 초범의경우 1년간 외항운항을 제한키로했다. 이밖에 이기준에의하면 해외동포나 외국인을 제외한內國人여행자의 밀수행위자에겐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회수하고 出國을 금지시키기로 했는데 ▲犯則時價 2백만원~5백만원의 초범에겐 1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군사우편이나 PX, 국제우편에의한 소포탁송품 밀수의경우도 2백만원~5백만원까지의 누범자에겐 2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키로했다. 또 공무원이나국영기업체,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이 밀수한경우 징계또는 파면조치키로했다.

日국내 異見으로
經協액수 못밝혀
盧外務에 마에다大使전달

盧信永외무부장관은 17일 본국정부와 政務협의를 마치고 歸任한 마에다·도시까스(前田利一) 駐韓日本대사의 방문을받고 약1시간30분동안 韓日經協문제에관해 요담했다. 이날 요담에서 마에다대사는 한국이제시한 60억달러經協현안에대해 일본정부내의 異見조정이 끝나지않아 구체적인 經協액수는 아직 제시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요담에 배석했던 한관계자는 전했다. 마에다대사는 또 日本側은 오는5월 사꾸라우찌(櫻內)外相의 訪韓을통해 經協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것을염두에두고 外務省·大藏省·通産省·經濟기획청등 관계부처간에 異見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고 사꾸라우찌외상의 訪韓시기는 經協문제에 관한 日本정부 각부처간의조정결과에 따라 결정될것이라고 盧장관에게 밝힌것으로전해졌다.

마에다대사는 政務협의차 일시 귀국중 스즈끼(鈴木)수상을비롯, 사꾸라우찌外相,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 와따나베(渡邊)大藏相등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經協문제에대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이에따른 일련의 협의를했다. 마에다대사는 이날상오11시30분 야나이(柳井)참사관과함께 외무부로 盧장관을방문, 요담을 끝낸뒤『經協문제에 대한 日本정부의 입장을 盧장관에게 설명했으며 經協에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고말하고 經協타결의 進展에 대해서는『깊이 얘기하고 싶지않다』고 입을 다물었다. 마에다대사는 또 일본정부요로의 개인 親書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외교소식통은 『마에다大使는 이번 歸任길에 經協에대한 일본정부의 최종代案(額數규모)을 휴대하지는 않았으나 본국정부로부터 윤곽은 示達받은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한국측으로서는 앞서 예비회담에서 開示한대로 5월 외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一括타결을 목표로하고있으나 일본측이 經協규모와 借款조건에 계속 인색한 자세를 보일 경우 經協早期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궁금한 보따리 韓日간에 엎치락 뒤치락끝에 막바지 고비에 접어든 60억달러 對韓經協문제는 과연 언제, 어떤 형태로 매듭지어질까. 열흘동안 本國 나들이를 다녀온 마에다·또시까스(前田利一) 駐韓대사는 16일상오 書類가방뭉치를 든 야나이(柳井)참사관을 대동하고 외무부장관실을 방문, 혹시나「妥結보따리」를 갖고온게 아니냐는 한가닥 期待(?)를 낳게했으나 결국 나들이 결과설명으로 始終하여「無進展」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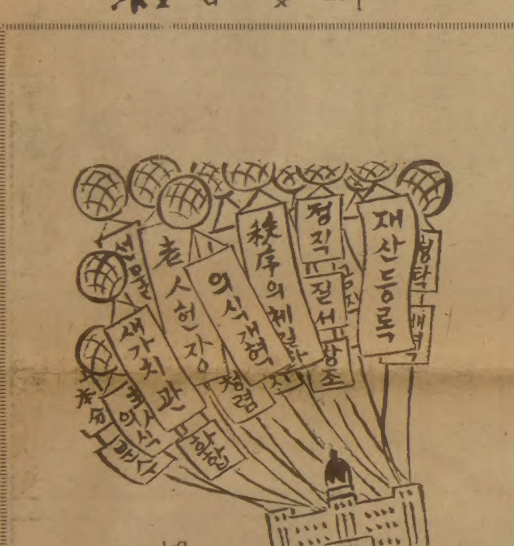
全大統領禮訪、會談
부시美副統領 訪韓日程 발표

조지·부시美 부통령내외가 劉彰順국무총리 초청으로 오는25일 특별기便으로 공식訪韓, 2泊3日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17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부시부통령은 滯韓중 두차례에 걸쳐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 韓美修交 1백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유대를재확인하고 공동관심사에관해 상호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부시부통령은 이밖에도 26일 국회를 방문, 본회의에서 연설을하고 前方을 시찰하며 국립묘지를 참배, 獻花한뒤 27일상오 離韓할 예정이다.

위컴、陸參次長에
駐韓美軍사령관 後任미정

【워싱턴16日=曺淳煥특파원】 駐韓미8군사령관이며 韓美연합사령관인 존·A·위컴장군을 美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 했다고 와인버거국방장관이 16일 상오발표했다. 한편 위컴사령관의 후임은 아직 확정되지않았다고 한백악관 대변인은 말했다. 위컴장군은 지난79년 5월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駐韓미8군사령관으로 부임했었다. 국방성관리들은 신임 駐韓미군사령관후임에 포리스터 하와이주둔 美서부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한 수명의장군들이 거론되고 있다고전했다. 관리들은 이장군들이 한국에서 근무했거나 또는 한국과 긴밀한관계를 가져왔던장군들이라고 말했다.

社會漫評



거 많다……

英記者 간첩혐의
아르헨티나 체포

【부에노스아이레스16日UPI=聯】 아르헨티나군당국은 지난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방3천5백80㎞지점의 리오그란데에서 영국기자3명을 간첩활동혐의로 체포했다고 아르헨티나군 소식통이 16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지난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남부항구도시 순회취재도중 실종된것으로 알려졌던 영국선데이·타임즈의 사이먼·윈체스터기자, 업저버의 이언·매더, 토니·프라임기자등 3명이 리오그란데부근 해군기지를 사진촬영하다가 군당국에 체포돼 우수아이아로 이송돼 왔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北傀敎官 계속駐屯
짐바브웨에서 檢討

【솔즈버리16日AP=聯】 짐바브웨 정부는 작년 중반부터 짐바브웨군 제5여단을 훈련시키기위해 북괴교관단을 파견한 유지비때문에 계속 주둔시킬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정통한 소식통들이 말했다.

地平線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16일 崔基植신부의 구속에 대한 천주교회측 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釜山美國문화원 방화사건에 신앙인이 관련되어있고 특히 가톨릭교회관계자가 사건과 더불어 자주 云謂되었다는점에서 한국가톨릭에서 「공식」으로 이문제를 擧論하고 釋明에게 교회측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 「담화문」에는 崔신부의 행위가 「司祭로서 良心法에 따라 최선을 다한것이긴하나 實定法에 저촉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敎會내부를 지배하는 良心法에 따라 崔신부가 무슨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우월하는 국가의實定法에 이행위가 저촉되는것이라면 實定法의 지배에 聖職者라할지라도 순응한다는것을 분명히 밝힌것이다. ▼그다음 崔신부 구속사건은 여러가지상황과 전후사정을 함께 고려했을때 崔신부 개인에 국한된 사건이라기보다 「교회와 사제전체의 문제라고 본다고 이담화문은 주장하고있다. 참뜻을 이해하기에는 혼란스런 표현이라하겠다. 實定法으로 사건을 처리할때는 事件관련자만 관계된다고 본다. 이번사건이 비록「신앙」을 가졌고「司祭」의 신분을 지닌사람이 관계된데다 혐의자 은닉 위장소가「성당구역」이었다고해도 당국은 피의자들 처리에서 그 신앙과 신분, 범법장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事件과 관련시키지 않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담화문의 주장처럼 교회나 사제전체에 관한 문제로 볼수는 없을것같다. ▼다만 가톨릭측에서 그런 신분, 장소, 또 구금자의 신앙이 교회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전혀 外面할수없다는 정도의뜻으로 말한것이라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러한 良心法에 따른 행위가 원인이되어 犯罪를 구성케되었다는 점에만 집착하여 이 良心法을 지니고 있는 교회나 사제전체가 원초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관련되지않느냐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판단인것 같다. 「케잘」도 全部를 요구하고있지는 않은것이다. ▼또 교회는 평소 일반세속인(신앙인)에게 說諭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실정법과 충돌되고 있는것을 전달하지는 않으며 과거에도 않았다고본다. 따라서 「교회가 책임질일은 아무것도 없을듯하다. 간혹 교회측의 社會參與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敎會가 신앙세계의 한계를 넘지않았는가, 세상이 그런 活動을 잘못보지 않았는가 하는 각도에서 시정책을 찾아 해결해가면 되는것이다. ▼담화문은 그속에서 「우리사회의 「和合」「관용」「소외방지」를 주장하였다. 불행스런 사건들을 근절한다는 뜻에서 새겨서 들을만한 제의이다. 우리社會는 거대하지만 그래도 취약하고 과민한 구석이 아직 남아있어 이런 담화문하나에도 마음을 쓰게 되는것이 사실이다. 安定과 和合을 이룩하는데는 寡默이 더나을때도 있다. 할말이 태산같다하더라도 이런뜻에서 지금은 사건에 대한 法의 심판을 차분히 지켜볼 시기라하겠다.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홍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간 : 4월27일(화)부터 매일공연
(월요일만제외)
오후9시— 새벽1시

〈영업시간〉 월·화·수 :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안개속 포클랜드는 어디로

헤이그 마라톤왕복仲裁속 당사국 속사정

아르헨

南美國들 똘똘뭉쳐

英語圈 카리브海나라도 가담

영국의 함대가 포클랜드군도 가까이 항진해오자南美대륙국가들의 단결이 강화되어 가고있다。아르헨티나를 도와 영국에 공동으로 맞서자는 결의는 좌우이념의 벽을 무너뜨렸다。

좌경국 니카라과는 물론 중도노선의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등 南미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對英 공동투쟁결의를 천명했다。

페루정부당국은 부인하고 있는 일이나 수대의 페루공군 소제 수호이 전폭기가 아르헨티나의 코모도로·리바다비아항에서 목격됐다。이 항구는 포클랜드군도에 대한 보급전진기지。

볼리비아 공군 사령관은 아르헨티나가 요청해오면 볼리비아의 전투기와 수송기를 파견할 준비를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南美대륙에서 맨처음 아르헨티나 지원을 부르짖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가 만약 리오조약을 발동한다면 공동방위를 규정한 조약정신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南美의 거인 브라질은 포클랜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주장이 정당성을 갖고있다고 주장해 왔다。

비록 함정의 재 급유를 위해서일지라도 영국함대가 브라질항에 기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해놓고 있다。

南美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영국과 밀접한관계를 맺고있는 칠레만은 애써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비글해협의 3개섬을둘러싼 아르헨티나와의 영토분쟁이 다시 살아날것을 두려워해서다。한 외교관측통은 칠레의 속마음이 영국편을들어 싸우고싶은 생각일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아르헨티나와의 영유권분쟁에서 영국은 칠레를 도왔기 때문이다。

포클랜드를 둘러싼 위기는 쿠바·아르헨티나관계를 復元해놓았다。중앙아메리카에대한 이견충돌로 1년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웠던 쿠바의 에밀리오·아라그네스대사가 귀임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대사를 아바나에 다시 파견했다。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의 지지를 얻기위해 페론당사무총장 후안·아말이 안전하게 국외로 망명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는 1976년 군사쿠데타후 멕시코대사관에 망명을 했으나 군사정부는 그의 출국을 아직까지 허용치 않았다。후안·아말에게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멕시코를 지원세력으로 만들고자 한것이다。

南美에서도 對아르헨티나 지원결의를 더욱 강하게 표시하는 나라들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스페인어를쓰는 나라들이지만 카리브海의 영어권나라들까지對英공동투쟁의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

영국의 함대파견에 의해 南美의 단결이 무르익어가고있는것이다。【부에노스아이레스 聯合=】

英國

海·空봉쇄 作戰태세

공격때는 먼저 空軍기지 폭격

영국국방성 수뇌들은 포클랜드군도에서의 아르헨티나군 축출방안으로 장기적인 해상봉쇄를 계획하고 있다。

군수뇌들은 이미 포클랜드를향해 대서양을 항해중인 영국해군을 보강하기위해 또다른 선박과 항공기를 추가로 출동시킬준비를 하고있다。

대규모기동함대의 파견만으로 아르헨티나군을 포클랜드에서 철수시킬수없다는것을 영국국방성은 깨닫게됐다。

군사전략가들은 만약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포클랜드분쟁 평화해결조정이 실패로 끝날경우 영국이 결국 무력을 사용하여 아르헨티나 군을 철수시킬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영국은 최악의경우 포클랜드를 무력침공할 태세도 되어있는것이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무력침공할경우 장기간의 해상봉쇄로 아르헨티나군을 약화시킨뒤 이를 감행할것이라는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해상봉쇄로 아르헨티나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군대증원과 재배치를 방지하면 아르헨티나는 전의를 상실하고 스스로 철수를 요구하고 나올것이라는게 영국측의 심산이다。

포클랜드군도의 기상도 고려에 넣어야한다。남반구에는 겨울이 다가오고있으며 혹한이 곧 몰려올것이다。

포클랜드에서는 겨울에는 항상 강풍이불고 눈이 많이온다。

영국이 포클랜드 봉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상뿐만아니라 공중까지 봉쇄해야한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포클랜드해역 2백마일을 전쟁지역으로 선포하자 공군력을 이용,空輸로 이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함대가 포클랜드에 도착할경우 영국국방성은 포클랜드주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으로 있다。

영국함대의 선봉인 허미즈號와 인빈서블號에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20대의 해리어전투기가 선재되어 있다。

영국정부는 해리어전투기를 보내기위해 대규모 컨테이너 상선을 용선했다。

1만2천톤급의 공격선인 인트레피드號(용맹)도 이컨테이너선과 함께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트레피드號는 이미 포클랜드로 항진중인 자매선인 피어리스號와 함께 포클랜드수륙양면 상륙작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영국함대를 보강하기 위해 4만5천톤급의 호화정기여객선 캔버라號를 비롯하여 25척의 민간선박이용선되었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침공할경우 맨먼저 취할행동은 포클랜드에 하나밖에 없는 아르헨티나 공군기지를 폭격、제공권을 장악하는 일일것이다。

그다음에 해리어 전투기를 이용, 상륙작전을 펴기위해 아르헨티나 기갑부대를 초토화 시키는 것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에 무력충돌이 생긴다면 이는 해상에서보다는 오히려 공중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것으로 보인다。【런던17日聯合=特約】

◇갈티에리 영접받는 헤이그

포클랜드분쟁해결을 위해 두번째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16일아침 아르헨티나정부청사에 도착、레오폴도·갈티에리대통령㊥과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외상㊨의 영접을 받고있다。【부에노스아이레스16日AP電送=聯合】

이占領 아랍領土 긴장高潮

일부선 총격전 더욱확산

【예루살렘16日AP로이터=聯合】회교성축일인 16일 가자지구 회교사원앞에 모인 아랍인데모군중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발포, 팔레스타인청년2명이 죽고 40명이 부상함으로써 이스라엘점령 아랍영토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팔레스타인의료소식통들은 부상자중에 10세미만 어린이가 5명이 있고 이중 4명이 중태라고 말했다。

이날 가자지구남쪽 칸유니스사원에서 금요기도회가 끝난후 이스라엘군이 아랍人군중의 데모를 막기위해 발포, 18세의 팔레스타인 청년한명이 죽었으며 이보다 앞서 가자사원을 떠나던 16세의 소년한명이 역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로써 지난 11일 부활절날 유태人의 총격사건이후 6일째 계속되고있는 아랍인들의 반이스라엘소요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3명·부상1백여명으로 늘어났다。

팔레스타인소식통들은 이날 또 가자지구서쪽 난민촌안에 있는 비치·캠프사원을 이스라엘군탱크 10대가 포위하면서 벌어진 총격으로 3살된 어린이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다른 2명이 부상했으며 요르단서안은 이스라엘군과 민간인들이 총격을 가하는속에 아랍인들의 소요가 전지역으로 확산되고있다고 말했다。

中東軍備경쟁

戰爭위험 漸增

【워싱턴16日AP=聯合】상호적대관계를 유지하고있는 中東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첨예화함으로써 中東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니콜라스·빌리어츠 미국무성 근동및 남아시아 담당차관보가 15일 경고했다。

최근 中東을 방문하고 귀국한 빌리어츠차관보는 이날 상원외교위의 한소위에출석、중동지역의 잠재적인 적대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무기를 대량축적하고있어 전쟁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가고있다고 말했다。

中·蘇무역協定 前年보다 50%늘려

【北京16日AP=聯合】중공과소련은 16일 지난해보다 약50%가 증가한 총 3억달러규모의 82년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공은 약2억달러에 달했던 지난 81년 대소무역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대동구권무역중에서는 최고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이는 지난 80년 무역량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이 동북부지역을 통한 대중공국경무역재개를 제의한바 왔으며 중공도 경공업제품을 시베리아로 수출하기를 희망하고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동구국가중 中共의 최대무역대상국은 대중공무역량이 약10억달러에 달하는 루마니아라고 밝혔다。

메아리

낮말은 幕에서 듣고 밤말은 비밀경찰이 듣는다고할까…。공산당 천지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다간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른다。

그래도 냉소적인 「地下조크」는 많다。그가운데 한토막—。브레즈네프가 동독방문을 마치고 야간열차로 귀국하는 길이었다。車窓밖으로 손바닥만 내밀고도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척척 알아 맞혔다。

동독의 빨갱이는 그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폴란드인은 침을 뱉어 버렸다。마지막으로 손목을 내미니 번개처럼 손목시계를 낚아 채갔다。「드디어 조국에 돌아 왔군…」

이 시니컬한 이야기는 실화가 아님은 물론이다。그런데도 아주 현실감이 넘친다。공산주의 소련에 대한 폴란드국민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만하다。

공산당이라면 우리는 침을 뱉을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라도 막아 선다。이념의 차원보다 뼈저린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6·25와 남파공비의 만행을 보고 겪었다。

68년 늦가을 吸血의 악마들이 蔚珍·三陟에 나타났다。「신고하면 죽인다」는 공포에 갇혀서도 한 10대소년은 공비출몰의 전보문을 적어 이웃마을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또 平昌 외딴집선 겨우 9살짜리 李承福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절규하듯 버텼다。보복은 잔인했다。어머니와 함께 일가 4명이 형언못할 참살을 당했고 승복군은 입마저 찢긴채였다。

그때의 만행상을 생포공비는 자기 입으로 증언했다。「혁명수행에 장애물이 되면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 받아 아녀자까지 죽여 버렸다」고 실토한 것이다。

承福군의 勳章

북괴는 오판했고 공비들은 속았다。남파되면 주민들이 잘 맞아 준다고 교육받았지만 부락민들의 거센 반항은 무서웠다。「물고기가 놀 물」은 이땅엔 없다。

그후 13년, 承福군에겐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동백장이 16일 周永福국방부장관에 의해 전달됐다。그는 건국이후 최연소훈장수훈자 서열에 섰다。살았다면 이젠 장성한 청년일것이다。

그가 살고뛰놀던 모교지역에 군에의해 유적단지가 만들어진다。청소년의산반공교육장이세워지는것이다。한 소년의 굽히지않던 반공의지가 이념교육의 표본으로 살아 남는다。그 죽음이 북한공산당의 정체를 똑똑히 밝혀 주었기 때문이다。

海外토픽

銃器犯엔 重刑효과

★레이건 防止策 최상주장

레이건美대통령은 15일총기를 휘두르는 폭력범죄를효율적으로 줄일수있는 방법은 총기규제법보다는 무거운 징역형 선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리노이주의 한 학교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미국내에서 워싱턴 DC의 총기법이 가장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청년이 대로에서 그것도 대낮에 총을 가지고 나를 저격했다』면서 자신이 캘리포니아주지사에 있을 당시、총기를 사용한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에 5~15년을 추가로선고하도록 제정한 법안이 가장 훌륭한 범죄방지책이라고 주장했다。【시카고=聯合】

10살짜리 銀行털이

★現金4만4천弗챙겨줄행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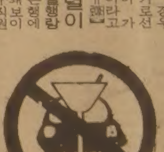
멕시코시티의 한 은행에서는 최근 10살도 안돼보이는 한 소년이 은행창구직원에게 시한폭탄이 장치된 장미꽃다발을 들이밀며 돈을건네줄것을 위협, 현금4만4천달러를 챙겨 도망쳤다。【멕시코시티=聯合】

해외건설수출 累計 現代 1백억弗돌파

現代建設(회장 鄭周永)의 건설수출누계가 1백억달러를 돌파했다。

17일 관련업계에따르면 現代建設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2억3천만달러규모의 마리나·센터건설공사를 수주함으로써지금까지의수주총액이1백억6백만달러를기록했다。

現代建設은 지난66년 태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15년만에이같은실적을 올린것이다。



아침에

날지 못하는 장속의 새

목마른藝術… 創意力살려야 生活도 살쪄

外華 內實의 균형

전성기 신라의 경주엔 17만9천여戶가 살았다。그 번화한얼굴이 史書엔 사실화처럼 그려져 있다。文治를 잘했다는 憲康王때 모습이다(AD875~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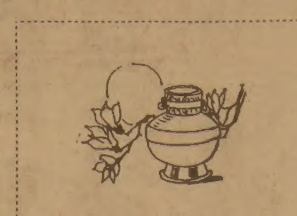
三國遺事의 기록은 간결하다。「城中에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집의 처마와 담이 서로 連接했었고 노래부르는 소리가 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을쉬이지 않았다」처용무도 이때부터 시작된것으로 알려 진다。

짤막한 기록이지만 한시대의 영화를 그려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된다。초가가 없을만큼의 外華、노래가 쉴새없이 흐르는 삶의 內實이 눈에 잡힐듯하다。유토피어로 憧憬을 비약 시킬것까지는 없지만 생활의 풍요감이 확실히 와서 닿는다。

흥겨운 가락이 만약 방탕과 퇴폐의 소리 였다면 저자 一然은 머리를 흔들고 달리 적었을것이다。

삶의 여유와 정서의 안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음에 틀림없다。이 史書에 숨어 있는「생활의 質」을 우리는또 한 [illegible]어보아야 하겠다。

三國遺事가 전해주는 여러 이야기보다 앞에 인용한 대목은 우리에게 삶의 氣概를 우선 느끼게한다。강하면서 부드러웠던 사회의 활기를 연상해 본다。강한것은 나라의 힘이요、부드러운것은 국민정신의 生氣가 아니었을까…。



조용한 흐름만이 있고 격렬한 소용돌이가 없는 江은 죽은江이나 마찬가지다。잔잔한 생존의 연장이 곧 생활의 모두는 아니다。생활의 의미에 생각이 미쳐야 창의력은 소용돌이 친다。이것이 창조의 원동력이다。

생활의 質이란 문화의 관심과 예술에의 애정으로 측정된다。日常의 현실에 묻혀 살다보면 창의력은 쇠퇴하고 역사의 큰 흐름은 정체하고만다。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의미를묻고 도전할때 그 시대문화의 탄생은 예고된다고한다。

봄이되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들이를 나선다。정서의 갈증을 풀고 생활의 변화를 원해서다。마치 겨울을 지낸 나무가 대지에서 힘빡 물기를 빨아올리듯 수분의 공급을 갈망하게 된다。

봄은 文化의 계절

공연장과 화랑에 눈이 저절로 돌려진다。문화행사와 예술활동이 활기를 띤다。봄은 문화의 계절이라지만 무언가 허전감은 여전하다。

정서의 목마름은 여러갈래로 해소시켜갈수있다。예술행위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먼저 대중예술의 윤활유구실을 빼놓을수 없다。인기와 유행의 물결을 탄 그상쾌감은 청량음료와도 비교 될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소설·영화제명을 보면 원색의 농도가 상당히 진하다는 인상을 받게된다。직사광선에 사정없이 노출된 눈처럼 어지럽다。

이런 자극성이 상업성과 에로티시즘의 是是非非를 여전히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은 뻔한 일이다。정서의 메마름을 좀더 힘차게 솟는 샘물에서 풀어볼수는 없을까…。

유행은 세태의 반영이고 일시적이다。생명이있는 문화란 과거에 뿌리를 活着시킨 현재의 開花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다。

영롱한 풀잎의 이슬에 취하기보다 그늘이 드리운 나무아래서 정서의 안정을 더 기대할수 있다고 믿는다。지금 우리 문화·예술의 뿌리는 우리에게 큰 그늘을 드리워줄만큼 깊지 못하다。문화의 力不足이 절실하다。

세종문화회관을 볼때면 더욱 그렇다。

일요일 한번이라도 매표구에 차분히 줄서는 관중을 보고 싶다。

入試의 화제가 되는「일류병」은 침투안한곳이 드물다。언제부터인가 실력이전에「일류의 結果」부터 찾는다。세계정상이 못되면 동양제일의 수식어라도 붙어야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일류志向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

魂있는 作品 기대

과연 內實이있느냐에 달렸다。스포츠는 세계최강、음악은 세계정상、미술은 세계적 명작이라야 우리 눈에 찬다。세종문화회관의 웅장한 규모는 이래서「세계제일」이 아니고는 발붙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78년 개관당시 우리 기대는 어지간히 부풀었다。본격공연장을 마련했다는 자랑을 크게 늘어 놓을수 있었다。건물자체가 우리 자부심을 높여준 사실은 애써 부인할 까닭이 없겠다。

공연예술은 예술(작품)、관객、무대의 3위1체가 요구된다。지금 무대는 있어도 우리작품과 그 관객은 만나보기 어렵다。2년전 서울에 있던 한 외국인은 急所를 누르듯 이 사실을 지적했다。

「초청공연을위주로 하고 창조적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공연장은 문화기관이 아니라 상업성을 띤 기관이다。」창조적 작품、이것이 우리에겐 당장 모자란다。그렇다고 쉽게 急造해낼수도 없는 것이다。

일류병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꾸로 자기卑下、자기멸시로 곤두박질한다。지금 우리의 문화의식에 이런 병적인 요인이 자리잡지는 않았나 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나무를 키우지 않고 열매를 기다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문화의 열매는 남의 것을 빌어올수없다。모양이야 어떻든 우리것을 착실히 키워가는수밖에 달리 지름길이 안 보인다。

남이 알아주기를 서둘러서도 안되고 또 너무 성급하게 목적을 얻으려는 자세도「창작행위」엔 개입말아야 한다。진정한 우리것이라면 언젠가는 세계와 통하고 만다。

일본「사무라이」의 칼이 오늘 미국인들에겐「예술」로 보인다。일부 수집가들 사이엔 일본 명검이 높은 값으로 거래된다고한다。미국수집가들이「예술」이라는 표현을 서슴지않는것은 순수한 일품을 칼에서도 찾아볼수 있기때문이다。창작의 생명은 강한 개성임을 여기서도 터득할수 있다。

우리는 지금 창작의 혼을 찾아내야 한다。그물길을 자유롭고 넓게 터줘야한다。무책이나 高速성장이 기대될수 없으며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메생苦心 있어야

위대한 미술품앞에 설때 그 작품뒤에 숨은 많은「메생의 苦心」을 먼저 기억해 둬야한다。하나의 大作이 완성되기까지엔 포즈로 달리하거나 같게 한 여러개의 習作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이기를 들었다。

창작의 최후고비를 넘기는 진통을 秋史는 더 뼈아프게 알려준다。그는 맨주먹으로 龍을 잡을수는 없지않는가고 묻는다。「多作이 있고야 大作이 가능하며 대뜸 成佛 할수없다」

秋史는 유명한 石坡(興宣君)의 난초그림을 神品에 가깝다고 평하면서 이런 교훈을 남겼다。「그림은 겉모양만 그럴싸하다고 좋은것은 아니다。畵法이나 갖고 그리려는것은 잘못이다。마지막까지 人力으로 안되는것이 있다。그렇다고 人力밖에 있는것도 아니다。石坡의 난초가 神品에 가깝다고는 하나 마지막 손질에 좀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창작의 결정적 순간이 이렇게도 숨막히는 일임을 숙연하게 깨우쳐준다。

흔히 國力은 경제력으로 재어진다。경제는 국민생활의 기본이니 당연하다。수치가 뚜렷한 잣대로 나라의 힘을 재어보니 그 비교도 객관적이다。그렇다고 경제의 힘만이 國力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생활의 質을 말할때 경제력만을 내세울수는 없다고 생각된다。體力도 國力이라고 한다。文化力이란 말이 쓰여질수 있다면 이 힘이야 말로 國力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을수는 없을것이다。文化의 에너지가 국력에 합산되었을때 세계에서 차지하는 우리위치가 어디쯤일까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무역만 보호주의정책이 있는것은 아닌 모양이다。영국은 런던의 음악시장을 넓혀가는 외국 오키스트러를 제한할 움직임이다。프랑스는 미국 로크음악의 홍수를 막으려고 프랑스 고유재즈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문화의 싸움도 어지간히 치열하다。

자기발견、자기개발이 없이는 共存의 여지도 좁아진다。창의력의 개발을위해선 표현의 울타리를 계속 넓혀줘야 할것이다。他律의 규제보다 표현의 절제와 압축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

문화·예술의 발전엔 국민적 관심이라는 투자와 분위기가 중요하다。우물안개구리는 [illegible] 모르고 장속의 새는 날지를 못한다。더높고 더넓게 뛰고 날수있는 터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겠다。

劉榮鍾 <本社 논설위원>

MINTZ AND PARTNERS
Chartered Accountants
56 APEX ROAD
TORONTO, ONTARIO M6A 2V2

Affiliated Offices in principal cities throughout Canada,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Chartered Accountant
심 상 수 787-0155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外信部
金炳武 차장
申相碩 기자
林鍾乾 〃
崔相鍋 〃
朴永範 〃
兪興根 〃
崔海雲 〃
李炳圭 〃
◇특파원
東京 宋孝彬

平和는 멀고 砲聲은 가까운「紛爭의 世界地圖」

☆地圖=李源存기자

地球村형편 어떻습니까

硝煙의 大陸·緊張의 바다…「不安한 늪지대」는 곳곳에

<1>

한국貿易路「반달型 不安帶」통과

160여국중 50個國이 시비휘말려

70년대 中東이 80년대 유럽으로 焦點이동

70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한창내전에 휩싸여 있을때 한국일보는 그곳 인터콘티넨틀호텔에 전화를 건일이 있었다. 인터콘티넨틀호텔은 당시 각국 특파원들이 모여있던곳. 왕에 충성하는 군대와 반군간에 오가는 十字砲火가 거침없이 벽에 와닿는 그 호텔에 혹시 코리안이 한명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朴永煥씨.

朴씨는 투정부리는 호텔 안내양을 구슬른끝에 수화기를 들고 나온 한국인이었다.

『제방 유리창이 박살이나서 지금은 流彈을 피해 호텔 지하 로비에 있읍니다』

국산 타이어를 팔러간 세일즈맨 朴씨의 떨리는 목청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들어와서 주인보다 더행세하려는데서 비롯된 요르단紛爭의 생생한 리듬을 읽었다.

그로부터 10년남짓.

우리는 이넓은 세상에 어딜 연결해도 나오는 한국인의 목소리를듣고 반갑고 놀랐다.

78년4월 파리를떠난 KAL은 노르웨이북쪽 국경과 맞닿는 무르만스크에 동체착륙을 했다. 무르만스크라면 유럽대륙을 내려다보는 소련 잠수함기지도 있고 전략공군이 사시장철 눈을 부릅뜨며 레이다를 돌리는 삼엄한 기지다.

계기고장 때문에 활주로도 아닌 극지대의 빙판에 누워버린 KAL사건은 당시 세계적 뉴스가 되었다. 코리안이 조종하는 그 점보여객기에 한국인말고 일본인 미국인 서독인등 겁많은 서양사람들이 많이 타고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70년대 내내 한국이 총총걸음으로 國勢신장의 길을 걸어온것은 더러 알려졌지만 그 코리안의 여객기가 삼엄한 소련의 북빙양기지를 멀찌감치 내려다보며 북극상공을 벌써 5년째 날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계에는 경이롭고 새로운 뉴스로 전해졌다. 미국인54명이 무더기로 인질로잡히던 테헤란주재美대사관에 갇혀있다가 풀려나온 石熙贊씨도 우리는 기억한다.

許甲晋씨와 李仁鎬씨, 그리고 26명의 동료들.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즘 한창 분쟁지의 대명사처럼들먹이는 엘살바도르에서 좌익게릴라에 붙잡혀 여러날동안 고생하다 살아온 한국인이다. 許씨일행은 엘살바도르사태가 세계의 이목을끌기도전에 오고간 左右대결로 적어도 1만명의 무고한목숨이 죽어간채 살벌해진 엘살바도르에 뛰어들어가 피복공장을세우고 달러를 벌어보려던 대담한 한국인들이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손엔 살아나왔다는 안도감이 가득히 넘치는 거리에서 [illegible] 하고있다.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 [illegible] 의 분쟁 6·25는 [illegible] 반도에 [illegible] 한국. 그 한국인이 한世紀 [illegible] 심을 갖고 내닫는 세계곳곳에는 紛爭의 늪이 도사리고있음을엘살바도르에서돌아온 許씨일행은 증언하고있다. 核공포의 균형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해가는 20세기말 세계에 50여개국이 이런저런 분쟁에 휘말려 있다. 지구상 1백60여개 나라중 줄잡아 셋중 하나꼴로 流血이 낭자한 시비에 휘말려 있다. 소련·중공, 중공·인도, 이란·이라 [illegible]

시리아 필리핀에서는 종교분쟁이 끊임없고, 캐나다 카프로스 스리랑카 南阿共 스페인 포르투갈 말레이지아 나미비아에서는 인종분규와 때로는 간이한 분리독립운동으로 들끓고 있다.

이렇게해서 이란―이라크전쟁등 부분적으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18군데나 되고 폭발성 높은곳이 7개지역이나 된다.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유사시에서방에 절실한 전략자원을 대줄 南阿共에서 북으로 터키, 그곳에서 東으로 말라카해협을 거쳐 동지나해에 이르는 지역이 각종 분쟁으로 반달型 不安帶를 이루고있다는 점이다.

이지역은 페르시아灣의 석유가 한국으로 오는 뱃길에 이웃해있고 또이웃집 또순이의 손길이 닿은 우리상품이 값싸고 질좋은것 심하게따지는 유럽시장으로 가는 만리길이기도하다.

분쟁의 生理는 주변에서 발생해서 역사의 求心力을 따라 중심부로 파급하는것。 세계대전은 그래서 순식간에 터질수있게 돼있다.

戰後 오랫동안 美蘇간 고래싸움에 鯨鰕들린 세계인은 어디에서 政變이 일어나면 그건 보나마나 美CIA가 배후에 있거나 소련의 팽창주의 魔手가 뻗친길로 들어서 알곤했다. 그러나 제나라 땅에서 自生한 분쟁이 그보다는 훨씬 더많다는걸 알아야한다. 제힘으로 설수없는 신생독립국들이겪는 시련, 그 경련의 患部를 알고 한국인은 뛰어야한다. 그래야 늪에 빠지지않는다.

시야를 좀 넓혀보면 50~60년代 초강대국의 분쟁은 주로 유럽과 東南亞에서 발생했다. 카리브해에서 벌어진 62년 쿠바위기는 그점에서 하나의 突然變異였다.

그것이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아프리카와 아프간사이 석유가 풍부한 中東으로 확산되었다. 분쟁의 초점은 80년代가 되자 유럽으로 다시 옮겨졌다. 폴란드사태와 미사일배치를 둘러싼 東西歐간 협박전이 유럽분쟁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中南美분쟁에 불길이 당겨졌다.

이들 5개분쟁중 中南美를 빼놓은나머지 4개는 직접 간접으로 서로 맞물려있다.

십중팔구 中共―베트남간 東南亞분쟁이 원인이 되겠지만 소련 중공간에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두나라가 다시 친구가 되어도 유럽의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중동의 중요성은 더욱 자명하다. 소련이 중동석유를 먹겠다고 덤비면 세계대전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타고있건, 불씨를 덮어주고 있건, 세계 어느분쟁이든 우리의 安保와 利害와 크게 상관이있다.

【金炳武 기자】

北極點에서 내려다본 美·蘇의 對峙

사이사이에「아이들의 싸움」이 흩어져 있다

북극점에서 내려다 본 지구는 두개의 큰 땅덩어리가 이룬 앙상블이다.

유라시아와 미주.

서로 상대방을 겨냥해놓은 核미사일과 전략폭격기들만 아니라면 참평화로운 공존의 모습이다.

그런 敵對의 배열때문에 그사이에 북극해가 끼어있는게 천만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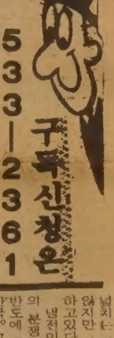
땅을 경계로한 나라들이 야웅다웅하는 분쟁의 판도가 드러난다.

核을 가진 현대의 골리앗인 미국과 소련이 지구의 운명을 끝장낼때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새우들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걸까.

東西유럽말고 나머지 주요 분쟁이 모두 못사는 후진국아니면 뒤늦게 국가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들사이에 벌어지고 있는것이 눈길을 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 페르시아만으로, 그리고 다시 동지나해로 이어지는 불안한 분쟁의 띠는 아무래도 걷히기 힘들게 되어있다.

그것은 인도양에 떠있는 군사강국들의 전함단과 남으로 뻗으려는 소련의 눈에 띄는 기도가 설명해주고 있다. 寒土라도 좋으니 영토가 넓은것만으로도 소련이 위안을 얻던 시대는 갔다.

50여개국이나 휘말려있는 오늘날 분쟁은 대부분 北半球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구독신청은 533-2361

연예인들의

찬양과 간증의 밤

한국연예인교회 복음가수 허림 집사

고달픈 이민 생활의 답답함을 풀고 기쁨과 웃음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에 모두 초대합니다.

일시 : 5월1(토), 2(일) 저녁8시30분

장소 : MADISON BAPTIST CHURCH
6297 MONKLAND AVE.
MONTREAL

순복음몬트리얼교회

담임 : 이은종목사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싹안트는 볍씨」…"農事망쳤다"

정부서 권장한品種 「曙光」 바꿔도 이미 때늦어

못자리철을 맞은 요즘 일부지방에 싹이트지않는 볍씨가 공급돼 말썽이다. 17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볍씨는 다수확품종인 통일볍씨 계통으로 국립종자 공급소가 일반농가에 공급한 서광(曙光·裡里342호)。이 품종을 선택한 충남洪城과 전남寶城지방의 농민 2백여가구에서는 정부의 조기이앙 방침에따라 지난4월 초순께부터 침종했으나 10여일 또는 2주일이지나도 제대로 발아(發芽)하지않고있다는것。

洪城·寶城 10일지나도 겨우30%發芽…抗議소동

서광품종을 공급받은 농가는 이를 두지역외에도 전국적으로 분포돼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썽이나자 농수산부는 다른품종으로 즉각 바꾸어줄것을긴급지시하는한편 조사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피해농가에서는 품종을 바꾸어 침종하더라도못자리설치시기를놓쳐『올농사를망치게됐다』고울상이다。

그간 정부는 올해 쌀8천3백만섬 생산목표달성을 위해 曙光등 다수확 품종을 적극 권장해왔다。

郡廳서 공급받아

【洪城·寶城】洪城군내 曙光재배희망농가 1백71가구 농민들은 침종적기인 지난3일부터 8일까지 일제히 당국으로부터 공급받은 曙光볍씨를 침종했으나 10여일이지나도록 겨우 30~40%밖에발아되지않았다며 郡당국에 항의하고 있다。

洪城郡은 지난해부터 새로 개발한 다수확품종인 曙光을 일반농가에 적극 권장하고농가희망에 따라 지난3월 전북益山 국립종자공급소로부터 3천5백20kg을 배정받아 관내 柳炳完씨(42·洪城郡廣川邑 碧溪里)등 1백71개 농가(재배면적 60정보)에 부대(20kg)당 1만1천4백30원씩 받고 공급했었다。

忠南道는 올해 洪城·靑陽등 17개시군 1천3백정보에 재배할 6만kg의 曙光을 배정했었다。

또 전남寶城郡寶城邑寶城里 김모씨(46)등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3월중순께 농협寶城邑단협으로부터 신품종 볍씨 曙光42가마를 보급받아 지난 3월31일~4월1일사이에 모두 침종했으나2주일이 지난17일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싹이나올뿐 전체적으로 싹이 나오지 않고있다는것。

이에 농민들은 17일 새로운볍씨를 공급받아 또다시 침종하는 소동을 빚고있는데 이처럼 새로운볍씨를 공급받아 침종한 경우 정상적으로 싹이나온다하더라도 이미 못자리설치가 2주일이나 늦어져 시한영농에는 큰차질을빚게됐다。【聯】

馬山앞바다에 海上公園

—馬山시민의「別莊」돋섬(猪島)에

25億들여 慰樂시설 골고루

汚染안된바다…來1일開場

【馬山이동독자부=方敎俊기자】『내고향 남쪽바다 그파란물…』「가고파」의고향馬山앞바다에 해상공원이 생겼다。馬山해안에서 1.2km쯤 떨어진 돋섬(猪島)에자리한 해상공원은 오는5월1일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한창인데 벌써부터 馬山을 비롯한 鎭海 昌原등지의 주민들이 새로운 휴식처로 기대를 걸고있다。

돋섬은 돼지가 편안히누운형상을 하고있다고해서 이름에 猪字가 들어갔는데 3만평크기로해발80m의 작은섬。馬山灣한가운데 자리잡아馬山市가 한눈에들어오고 鎭海灣으로 통한 외해(外海)를볼수있어「내고향남쪽바다」를 사랑하는 馬山시민들이즐겨찾던곳이다。해안과는달리바다물이 오염되지않아 바다낚시꾼들이 몰리고 신선한회를 맛보기위해 시민들이 일부러 배를타고 건너가곤하던 馬山市의 별장같은 섬。

그러나 돋섬에는 위락시설이 거의없는데다 배편이 불편해 명실상부한 馬山시민의 휴식처로선 부족함이 많았다。이에따라 馬山시는 10년전부터 돋섬을 해상공원으로 주밀 계획을 세웠으나 그동안 예산문제로 시일을끌어오다 지난79년8월 三成개발이 손을댔다。그러나 이회사도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못하다 서울德壽종합개발주식회사가 지난1월 공사를넘겨받으면서 본격화되기시작、현재 90%의 공정을보이고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자금만도 25억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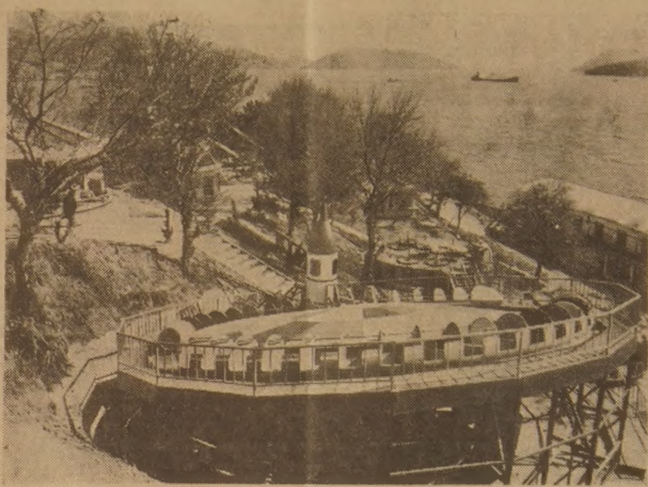
해상공원엔 해수를 이용한 대형풀장을 비롯、요술궁전·회전목마·풍차놀이·전자오락실·미니자동차놀이등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오락시설과 해산물센터·방가로·낚시터·장미광장등 시민을 위한 위락시설이들어서게된다。

해상공원엔 1만명이 한꺼번에 입장해 즐길수 있는데 德壽종합개발측은 돋섬을 찾는 시민을 실어나르기위해20톤급유람선 4척을 건조중이며 올한햇동안은 무료로 운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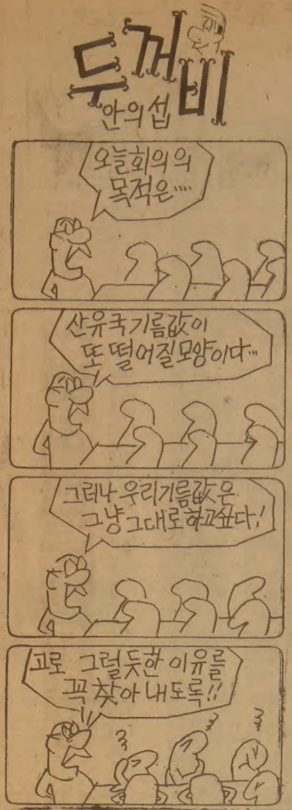
해상공원이 완공되면 馬山市에 무상기부체납하고 德壽측이 20년간 운영을 맡게된다。

馬山시민들은 해상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馬山의 새로운명소가 될수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있다。특히82년1월 현재 馬山주변인구가 馬山50만、鎭海20만、昌原15만등 85만명에 달하는데도마땅한 휴식처가 없던터에 이 돋섬해상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사랑을 받게될것이라는것。崔洙英씨(42·馬山市月浦2洞161)는『돋섬의 해상공원화는 때늦은감이 없지않다』며『馬山의 생선회를 돋섬에서 다시 맛볼수있게됐다』며 반가와 했다。

德壽종합개발측은 4~5년후면 馬山주변인구가 1백만명을 돌파할것에 대비、앞으로 관광호텔、향토박물관、모터보트장등도 갖추어 명실상부한 국민의 해상휴식처로 꾸밀 계획이다。



◇馬山의 새名물이될 돋섬 해상공원。어린이를 위한 각종 위락시설과 낚시터、해산물센터등이 시설돼 馬山시민의 유일한 휴식처가된다。【朴泰弘기자찍음】



OMEGA
세련된디자인 정밀한시간
미도파백화점
B.536-1692

"高位層잘안다"속여 9千여만원 가로채

「大法院심리사건解決」미끼

서울시경은 17일 고위층을 잘아는 유력인사라고속여 대법원심리사건을 잘해결해 주겠다는등의 수법으로 9천여만원을 사취한 전통아조선회장 李圭頭씨(52·전과3범·서울鍾路區平洞26)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79년4월17일 부산 모상호부금회장 田效洙씨(56)에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산의 한 학교법인 동아학원이사장 鄭洙鳳씨와 조흥은행간의 강종지 21만3천7백평(부산市西區新平洞79의2)등에관한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기각결정케하여 시가 50억원상당의 이땅을 30억원에 살수있게해준다며 교제비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것。

李씨는 또 馬山수출 자유지역에서 특혜를 받게 해준다는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천3백만원도 사취하기도 했다는것。

柳承烈에 令狀신청

釜山市警

【釜山】부산시경은 16일하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휘발유구입및 유나백화점 불온전단살포범인 柳承烈군(21·釜山공대화공과3년)을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柳군을 숨겨준 柳군의 애인 金모양(21·釜山대약대4년)도 이날 경찰에 자수했는데 경찰은 金양의 구속여부를 조사후 결정키로했다。【聯】

산나물사먹고 10명이食中毒

【安東】경북安東市法興洞16 이명옥씨(74·여)등10명은 지난16일 하오6시께 安東市西部洞 구시장에서 노점상인이 판매하는 鬱陵島산 산나물을사다가 집에서 삶아 먹은후심한 구토와함께 전신마비증세를 일으켰다。安東성모병원에 입원했으나 김씨등2명은 중태다。【聯】

教員봉급 千7百萬원

光山農協支所서 도난

교직원봉급 1천7백여만원이든 돈자루가 농협지소에서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상오11시35분께 전남光州市錦南3路 농협光山郡지부에서 光州남국민학교 고용원 고봉산씨(36)와 박대홍씨(서무과장·42)、경리계여직원 윤이숙씨(24)등 3명이 교원봉급 1천6백5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해 정부미부대에넣고 세금계산을 끝낸후 돈자루를 찾았으나 없어졌다는것。

光州경찰서는 노란색 잠바를 입은 25세가량의 청년이 돈자루를 들고 은행을 빠져나갔다는 목격자 진술에따라 범인으로보고 수배했다。

「事故백신」과 동일제조번호

腸티푸스接種 중지

보사부는 17일 서울江西중학교에서 접종한 장티푸스백신과 제조번호가같은 녹십자제품 백신 2백35만명분에대해 접종을 중지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이 백신은 지난81년 9월10일 제조되어 유효기간이 83년4월18일 까지로 되어있다。

러시아船인양위해 日特수潛水船도입

【浦項】鬱陵島 근해에서 침몰된 러시아 보물선 인양작업을 펴고있는 都進실업주식회사(대표 郭慶培·35)는 17일 정밀수중탐사작업을 벌이기 위해 해저탐사전문회사인 新日本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특수잠수선(사진)을 들여왔다。

시가 20억원을 호가하는 이 잠수선은 길이6.3m、폭1.6m、무게2.3톤으로 해저3백m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기술진2명이 탑승、바다속에서도 시속 3.5노트까지 달릴수 있다。

특히 이 잠수선이 보유하고있는 장비는 수중촬영·수중녹음·수중절단·수중용접기등 다양하며 수중에서 5시간이상 작업을 할수있다。

한편 都進실업은 이 잠수선으로 침몰된 러시아순양함 드미트리·돈스코이호(6천2백톤)의 내부구조를 촬영、금은보화의 매장량을 정확히 알아낼수있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聯】

한국인으론 처음

美크라우드大總長 孫聖源박사 선임

在美한국인경제학자 孫聖源박사(37)가 미네소타州에 있는 세인트·크라우드주립대학 총장으로선출됐다。

孫박사는 최근 열린 세인트·크라우드대학 이사회에서 現카르니주립대학(네브래스카州) 총장 브렌든·J·맥도널드씨(51)와 신임총장자리를 놓고 표결을벌인끝에 6대4로 이겨 동대학총장으로 확정되었다。

한국인으로서 美國에서 주립대학의 총장이 되기는 孫씨가 처음이다。

孫씨는 全南光州태생으로 光州西中과 光州一高를 졸업한후 지난60년 渡美、플로리다주립대학경제학부를 거쳐 피츠버그大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하버드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4·19기념 講演뒤 千여명 示威벌여

16일하오9시10분께 서울鍾路區惠化洞 천주교惠化洞성당에서열린 4·19 제22주년기념「성직자의강연」을듣고나오던 대학생들이 한때 반정부구호와 노래를부르며 경찰과 대치、30여분만에해산되고 南모군(21·서울大3년)등 10여명이 연행됐다가 1시간뒤 훈방됐다。

이날 강연회는「부활과 4월혁명」이란 주제로 서울YWCA 대학생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등 3개단체가 공동주최、하오6시에 시작됐는데 강연이끝난뒤 학생들이「우리의입장」이란 유인물 3백여장을뿌리며 성당을나오다 경찰과 마주쳤다。

관광객 金品도난

【釜山】16일하오 5시30분께 미국인관광객 제니스·젠센로이즈씨(37)가 부산海雲臺區佑洞 산일여관에서 미화2천달러 롤렉스손목시계 1개등 모두2백90여만원어치의금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젠센로이즈씨에 따르면 이날상오 11시께 東區草梁洞텍사스촌 관광안내원을 지칭하는40대남자가 자신에게접근、海雲臺구경을 시켜준다기에 이날낮 산일여관으로 안내를받아 여관방에서 맥주를 함께 마신뒤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남자는 없어졌고현금등도도난당했다는것。【聯】

"종합病院건립 下請주겠다"

9億뜯어낸 30代덜미잡혀

【大邱】경북도경은 17일 종합병원건립공사를 맡게해주겠다고 속여 건축업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李鍾燮씨(38·서울江南區新沙洞97공무원아파트9동나호)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7월3일 당국으로부터 慶山郡慶山邑栢泉洞6의2에 慶山종합병원 건립허가를 받고 재단이사장을 맡아 같은해 10월16일 大邱고려건설대표 李鍾出씨에게 공사비10억원가량의 병원건립공사를 도급주겠다며 6천만원을 사례비조로 받은것을 비롯、부산국제토건、서울덕산기업등 굴지의 건설업체대표 7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억1천9백40만원을 가로챘다는것。

李씨는 월리6%의 높은이자를주고빈 2억원의 사채로 잔고증명을만들어 예치금이있는 것처럼꾸며 병원설립인가만 받은후 되돌려주었으며 건설업자들로부터 사취한돈으로 대지를 구입한것으로 밝혀졌다。【聯】

폭력輩고용한 養殖業者들

警察、全面수사…근절키로

【麗水】속보=전남麗水市만수장호텔 양식업자 상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7일 이사건을 계기로 麗水·麗川관내에서 허가된양식장을 금품을주고 채취권을 위임받은후 폭력배들을 고용、관리해온 金모씨(35·전남麗川郡華陽面梨木里)를 비롯 전체양식업자들에대한 일제수사를 펴기로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허가된 업자가 양식장을 직접 관리하지않고 채취권을 전매하거나 위임、임대를 중점적으로 적발、불법 채취에따른 해상 폭력을 근절키로 했다。【聯】

"共産黨이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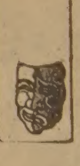
勳章받은「反共소년」의 형 李承官씨

"내생애의 意味는 承福이「증인」에…"

「반공소년」李承福군의 형 李承官씨(29·사진)는 16일 동생에게 추서된 국민훈장 冬柏章을받아들고 주위사람들에게 14년전 江原道산골의 한겨울밤으로 안내했다。

『68년12월9일、초겨울 산골의 밤 8시는 칠흑같았어요。저는 제동생과 아랫방에、어머니는 웃방에서 메주를 삶고계셨지요。기관총을 든 다섯명의 공비가 웃방에 셋 아랫방에 둘로 나뉘어 덮쳤습니다』

이야기는 承福군이 맨먼저 공비의 대검에 찔렸고、이순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공비들에 의해 내동댕이쳐진 막내동생의죽음、외출했다 귀가하던 아버지 李錫雨씨가 엉덩이에 공비가찌른대검이 꽂혀있는줄도 모르고 집뒤울구르면서 2km밖 예비군초소에달려가 신고를하는 살륙과 저항의 현장으로 이어진다。



『승복이는 그날밤「바른생활」교과서를 펴놓고 숙제를하던 중이었읍니다。공비중 하나가 어린것이 공부하는게 신기한듯「야、넌 북조선이 좋으냐、남쪽이 좋으냐」고물었고 승복이는「남쪽이 좋아」하고 대답했읍니다。그러자 공비는 벌컥 화를 내며 멱살을 잡더니「어디 한번 다시 말해봐」하며 윽박질렀읍니다。승복이가「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외친 것은 이때였읍니다。이순간 이미 공비들의 대검은 승복이의 온몸을 마구찌르고 있었고 죽은 방은 어느새 새빨갛게 물들었읍니다』

李씨는 그 악몽의 날로부터 살아났지만 그이후의 생활은 고달팠다。아직도 그때의 충격때문에 정신질환증세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남의집 농사일을 도우며 중학교를 다녔고 77년에는 江陵商高를 졸업、강원은행 강릉지점에 취직을 했으나 어려서 받은 충격이 악성빈혈을 불러 1년이 채못되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었다。

그러나 李씨는 지금 국방부의 도움으로 한전江陵지점에 일자리를 다시 얻고 아버지 李錫雨씨(59)와 부인 金仁子씨(25)、4개월된첫아들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승복이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23살、아마도 씩씩한 국군용사가 되었겠지요…』

李씨는 承福이가 14년전 군병원에 실려갔을때 의료진은 36군데의 칼자국을 보고는『죽었다』며 흰천을 덮었었다고 회상하면서『내목숨은 승복이의것。승복이를 대신하여 반공의 증인이 되는것이 내 생애의 의미』라고 했다。【申鉉鉄기자】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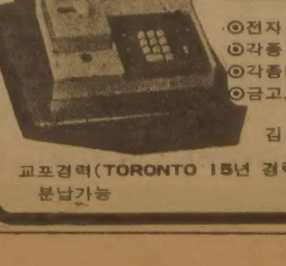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8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경욱
533—236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각국 通關과정 많이 다르다

알뜰 해외여행 ⑩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先進國선 麻藥통제 엄격
美선植物·씨앗등 搬入절대不許
日은 현지就業견제 젊은 女性에 신경
유럽은 旅行者의 天國 국내보다 수월

『신고할게 있읍니까』(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해외나들이를 하다보면 말도 설고 낯도선 세관대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듣게 된다。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여행자들의 경우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순간이다。金浦공항도 통관절차가 까다롭지만 외국공항은 사정이다를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판이다。

국제공항엔 CIQ란 말이 많이 쓰인다。세관 (Customs) 출입국 (Immigration) 방역 (Quarantine) 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 주로 국제공항의 통관과정을 말한다。 CIQ의 엄격성은 나라에따라 다르다。선진국은 여권이나 마약에대한 체크가 심한편이고 후진국은 갖고 들어오는 상품에 신경을 쏜다。또 한국이나 대만같은 나라는 출관물품에 엄격하고 중동에선 종교관습에 따른 물건의 제한이 있다。

통관에는 요령이랄것 까지는 없지만 지역마다 다른 국제공항의 사정을 알아두는 것이 여행자에겐 유익하다。

우선 어느 공항에서나 술과 담배는 엄격히 반입량을 제한하는게 보통이다。대체로 담배 2백개비、술 1병이 허용치인데 공항에따라 다르니 비행기내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엔 절대로 술은 갖고갈생각을 말아야한다。회교법으로 금주를하는 나라이기때문이다。이걸 잘모르고 술을 반입했다간 벌금을 물거나、용케반입하고 마시다가 들키면 혼이나게 볼기를 맞게된다。그래서 제다공항등의 CIQ화장실엔 술냄새가 진동한다。멋모르고 술을 갖고 들어가다 벌금 물린다는 이야기를듣고 모두들 화장실에 술을 쏟아버리기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

미국의 공항은 출입국심사가 까다롭다。『미국에 왜 왔느냐』『어디서 묵을거냐』『초청자가 누구냐』고 심사관이 피의자 다루듯 질문을 하는데、이때에는 당황하지말고 또박또박 대답해야한다。우물쭈물 할수록 더욱 의심을 받으니까。이 심사관이 체재일수를 정해주기 때문에 머무르고 싶은 날수를 정확히 대고 기록카드에 어느 호텔에 묵을 것인지도 기내서 써뒀다가 제출해야 한다。

미국세관검사는 그리 복잡한편은 아니다。그러나 미국세관원들이 한국인들이 지저분하게 물건을 많이 갖고다닌다는 인상을 갖고있어 스포트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선물이란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고 모두 자신이 생활용품이라고 대답하는게 낫다。세관원을 속이다가 발각되면 조사실로 끌려가 팬티까지 검사받는 일도 있다。

미국세관은 식물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과일씨앗은 절대 반입을 안시킨다。또 마른 오징어、김등은 괜찮으나 냄새가 나는 젓갈·김치·고추장을 가지고 갔다가는 망신당하기십상이다。

또 미국에선 돈도 5천달러이상은 신고해야 한다。갖고있던 1만5천달러를 신고하지않았던 한국인 여행자가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다。가지고 있는게 들켜면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출처는 따져묻지는않으니까。

대만서도 외화는 액수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입국때 신고 않았다가 출국때 들키면 일정액이상은 압수해 버린다。

일본의 공항은 관광객에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그러나 젊은 한국여성에겐 무척까다롭다。입국한뒤 여행목적과는 달리 현지취업 (?) 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비자신청때 질문에 대답했던 내용과 일치해야 되고 일본서 묵을 주소도 정확히 댈 일이다。

동남아 공항은 어떤가。자유항인 홍콩은 『며칠머무르나』는 정도의 질문으로 간단히 끝나고 싱가포르·방콕공항도 수월한편。그러나 한때 자카르타공항·마닐라공항세관에서는 한국여행자들이 자주 곤욕을 치렀다。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하는듯한 실랑이를 곧잘 벌였다。스리랑카의 콜롬보도 마찬가지였다。이때 항의를 해봤자 세관원은 [illegible] 검사를 까다롭게 했다는 소문。

몇년전에 한 한국인 여행자가 태국에서 산 지갑을 자카르타세관원이 달라고 하자 거절했더니 지갑을 세관에 유치시켜 버린일이있었다。며칠후 공항을 출발하며 유치된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직원이 안나왔다며 내주지 않은일도 있었다는것。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여행인 경우는 세관직원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여행사가이드가 알아서 40、50달러를전네주기도 한다는것。이런곳을 많이 드나드는 여행자들은 아예 20달러짜리 지폐를 준비했다가 건네주면 무사히통과할수 있다고 한다。

홍콩을 통해 대만에 들르는 여행자가 조심할 일은 홍콩에서 싸다고 산 중공제 상품이 없나 확인할 일이다。있다면 상표등을 떼어야 대만에 들어갈 수 있다。

세관원이 돈을 요구하는일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종종겪는일로 알려져있다。

유럽은 정말 여행자의 천국이다。서유럽국가의 국경넘어 다니는 것이 한국에서 국내여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것이 없고 濟州道여행보다 오히려편하다。

기차여행을 많이 하다보면 여권에 유럽에 다녀온 증거조차 안남는다。취리히 공항은 세관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기 일쑤고、출입국 관리직원은 『환영합니다』(Willkommen) 고만 연발。

프랑스·벨기에·독일·스칸디나비아 3국공항이 모두 신경쓸데가 못된다。특히 기차여행으로 국경을 넘으면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기차표를 검사하듯 여권을 훑어보기만한다。그러나 자동차여행일때는 국경초소에서 여권은 조금 특별대우를 받는일이 있다。

그런데 경제적사정이 나쁜편인 영국·이탈리아·아일랜드등은 입국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경우가 잦고 밀수감시도 심하다는 인상을 받을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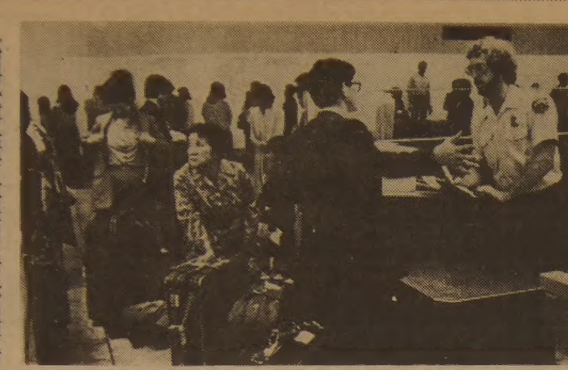
세관은 검사생략이 많지만 간혹 스포트체크를 하는수가 있는것。그러나 한국·일본 여행자에겐 신경을 안쓰니 안심해도 된다。

유럽의 세관검사는 대부분생략이 많고 의심이 나는 경우 여행자에게 물건내용을 물어보고 1개의 가방을 열어 확인한후 이상이없으면 통과시킨다。

중동지역은 CIQ검사못지않게 보안검색이 심하다。또 일부 아랍국가에선 여권에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입국허가를 안해주는 곳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느나라 세관이나 공통된점은 여행자의 국적에 따라 검사방법도 다르다는 점도 참고할일이다。말하자면 1등국민일수록 제대로 예우를 받는경향이있다。『당황하지 말고 정직해라』이것이 歐美·일본의 CIQ를 통과하는 요령이라고 경험자들은 말하고 있다。

【李鑛기자】



◇출입국 수속은 한국만 까다로운것이 아니다。미국은 출입국관리가 까다롭게 굴고 동남아 세관에선 공공연히 돈까지 요구한다는 세평이다。【한국인의 짐을검사하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세관】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포식했어"

"하지만 끝내기로 뭘 먹어야지"

"대부분 손님들이식사후 주문하는게뭐죠?"

"중탄산 소다입니요" ※중탄산소다 : 약국에서 소화제로 파는 흰가루약으로 물에타면 소다수가됨。

스포츠話題

장거리 뛸때는 맹물이最高

美예일大연구팀 "설탕은 持久力떨어져"

◆…장거리운동선수가 당분이 든 음료수를마시는것은 持久力향상에 이롭지 못하다고 예일대학의 연구진이 15일 밝혔다。

뉴잉글랜드醫學誌 최근호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14시간을 굶은채 밤에 잠을자고난 사이클선수들에게 정지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태워본결과 일부선수들은 低血糖증세를 보이지않은 선수라하더라도 최고70분이상은 자전거페달을 밟을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격한 운동이 이처럼 低血糖증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탕이 든 냉수를 마시면 低血糖증세가 일어나지 않으나 이를 마신 선수들은 低血糖증세와는 관계없이 당분첨가인공음료를 마신 선수들과 거의 같은시간내에 기진맥진하게된다고 밝혔다。

예일대학 의학교수 필립·펠리그박사는 『연구의 요점은 운동중 설탕이나 포도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않는다는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턴대학의 한 육상코치는 장거리선수들에게 가장좋은것은 경기직전에 음료수를 마시되 경기중에는 맹물을 마시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50년동안 과학자들은 마라톤선수와 사이클선수들이 低血糖증세를 갖게될 가능성이 있으며、특히 90분이상 지속되는 운동의경우 혈당생산의 속도가 유지되지 않을정도로 혈액중의 포도당을 고갈시켜버리는 것으로 알아왔다。

事務員으로 일하는 자토펙

올해59歲 "公害때문에 달리기도 힘겨워"

◆…50년대 올림픽 육상 장거리 왕자였던 체코의 에밀·자토펙은 요즘음 예전처럼 많이 뛰지않는다。공해와 교통혼잡때문에 마음대로 달릴수 없기때문이다。

지난 52년 헬싱키올림픽에서 5천m·1만m 마라톤을 휩쓸어 세계의스포츠계를 놀라게 했던 그는 핀란드의 파보·누르미의 유연하고 활달한 스타일과는대조적으로 몸을 구부리고 보는 사람까지 긴장시키는 러닝폼으로 코스를 질주했었다。

금년 59세의 자토펙은 이제 올림픽의 영광도、지나간 정치적 소용돌이도 뒤로한채 체코체육훈련연맹 문서국서 일하고있다。

그는 체코의 체육진흥을위해 뒷전에 앉아 일하는 "스포츠세일즈맨』의 한사람이다。체코국민은 수준이 뛰어난 그들의 테니스선수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다。

자토펙은 국립체육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그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젊은 선수들이 클레이 코트에서 연습하는 광경을 보며 입을연다。

『요즈음은 사무실까지 자전거로 출근합니다。애용하는 조깅 코스중간의 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갔는데 복구해주지 않는군요。』

다른 길로 조깅을 하라는 부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의 교통혼잡과 공기의 오염때문에달릴수가없다는것。부인 다나여사는 투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자토펙은 지난68년 체코가 유화 움직임의 기수였던 두브체크를 열렬히지지했다가 그 후 들어선 후사크정권에 의해 당에서 추방당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끊임없는 압력에 그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사회적위치는 회복했으며 지금은 체코교외의 아담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있다。정치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생활이 현대화되면 될수록 스포츠가 필요하지요。자칫하면 두 다리가 장식품으로 전락할 테니까』。78년 뉴욕마라톤대회에 수천명이 참가한 것을 보고 놀랐다는 그는 오는 5월에는 프랑크푸르트마라톤대회에 출발신호를 맡기위해 출국한다。

◇자토펙選手

南阿共에 가서 對戰못한다

WBC회장、베니테스 타이틀 剝奪경고

◆…호세·술레이만 WBC (세계권투평의회)회장은 WBC슈퍼웰터급챔피언인 멕시코의 윌프레도·베니테스가 南阿共에서 경기를 벌일경우 타이틀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베니테스는 데이비·무어─칼리·위어戰의 승자와 타이틀전을 벌이기위해 南阿共으로갈 계획을 세우고있다。인종차별반대를 방침으로 하고있는 WBC는 앞서도 베니테스의 南阿共여행이 허가되지 않을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술레이만회장은 베니테스가 有色人을 차별하는 南阿共의 인종차별에 대한 WBC의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그가 끝내 고집을 꺾지않을경우 WBC타이틀을 공석으로 선언할것이라고 경고했다。【AP·UPI=聯合】

文化短信

맥도널 일러스트레이션作品展 19일부터 百想기념관서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리처드·맥도널의 일러스트레이션작품전이 19일부터 27일까지 安國洞 百想기념관에서 열린다。전시작품은 인쇄를 위한 오리지널작품과 석판화들로 일러스트레이션에 의한 다채로운 표현능력을 잘보여주고 있다。특히 인물묘사의 표현력은 그림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예술감각을 느끼게한다。호롬社주최。〈사진〉

趙名人 十段戰소개

KBS 제3TV는 18일부터「바둑강좌」(매주일요일 하오1시10분) 시간을 통해 趙治勳日本名人겸 本因坊및 十段位의 對大竹英雄戰을 소개한다。金秀英5단의 해설로 도전 5번기의 4국이 모두 소개된다。

全國 꽃씨날리기 24일 4大都市서

KBS는 오는24일 서울汝矣島광장과 大邱·釜山·光州등지에서 제2회 전국꽃씨날리기대회를 갖는다。제1라디오와 TV로 중계될 이꽃씨날리기에는 5천봉지의 꽃씨가 헬리콥터로 살포될 예정인데 여의도행사장에서는 인기가수들이 참가한 공연도 곁들인다。헬기에 탑승、꽃씨를 뿌릴「꽃아가씨」에는 KBS탤런트 金美淑양이 뽑혔다。

朴永大 동양화展

滿州에서 활동중인 동양화가 松溪 朴永大씨의 작품전이 21일부터 27일까지 뉴코아쇼핑센터 미술관에서 열린다。시골 농가를 소재로한「鄕」「그 옛날」「[illegible]」등 향토적 정감이 담긴 작품들을 모았다。

구독신청은 (416) 9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㉓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떨어져있을 때 오히려 더 똑똑히 상대방을 보는 수가 있다。

수지가 상상한대로 인재는 서울역 광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기다리고 바글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그는 허허벌판에 혼자서있는 것처럼 쓸쓸했다。수지가 상상한대로 열등감이 그를 사정없이 좀먹고있었다。그는 바보처럼 울고싶었다。

그 열등감은 졸업식이 끝나고 수지를 그의 노모에게 인사시키면서 비롯된것이기때문에 노모만 떠나보내면 말끔히 가실줄 알았다。그래서 그렇게 허둥지둥 노모를 떠나보냈건만 열등감이란 고약한 느낌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열차가 도착했는지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여행에서 돌아오는 서울사람들은 날렵하게 광장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쪽으로 또는 택시를 타려 흩어졌지만 초행인 시골노인은 마중나온 사람을 찾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아무나 붙들고 길을 물기도했다。

가방을 둘러메고 청바지고 제법 품재고 사방을 째려보건만 서울이 초행이 아니면 줄없는 고장임을 단박 알수 있는 젊은이도 있었다。그의눈에서린 감출수없는 불안때문이었다。인재역시 그렇게 처음으로 연줄없는 서울땅을 밟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인재는 알고 있었다。비록 그동안 세상이 많이 잘 살게돼 무단가출한 소년소녀의 옷차림도 왕년의 그와는 댈것도 아니게 세련됐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애써 불안을 떨치고 부릅뜬 눈에 비친 서울 하늘 저쪽끝에 걸린 무지개에 대해。

서울 사람 눈엔 배연이 흐려놓은 탁한 하늘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만은 그들이 잘 차 따야할 무지개를 볼수 있었다。

서울 하늘에서 무지개를 본 젊은이는 수도없이 많았지만 무지개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인가? 무지개는 저만큼 걸려있을 때 무지개일뿐 도달해 손에 닿으면 이미 무지개가 아니었다。

인재는 노모로 부터 놓여나고도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는 열등감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노모가 인정한 것처럼 그만하면 성공을 한 셈인가?

노모가 개찰구를 나가면서 한 마지막 말도 너처럼 성공한 아들을 어떻게 자주만나 볼수있겠느냐는 쓸쓸한 체념의 말이었다。그런 체념이 노모를 자유롭게 한것처럼 그때부터 노모는 달음박질을 잘도 쳤다。

싫든 좋든 그도 자신의 성공을 긍정해야할 것같다。고학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수한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선발이 됐으니 시골뜨기가 대단한 성공을 한 셈이다。

도달하고보니 빛은 사라지고 무지개도 온데간데 없었다。그러나 그는 이미 도달해버린 것이다。

목표가 고작 그건 아니었다。그렇다고 밖의 무엇이었다고 꼭집어 말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목표는 저만큼 있을때 무지개 였다가 도달하고보니、서울에 왔고 썬 범속한 화이트칼러의 하나가된데 지나지않았다。

그는 목표가 전혀 어긋났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미 도달해버렸다는데 절망했다。

무지개는 가능성이었다。그가 상상한건 무지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었다。시골뜨기 고학생이 수지와 동등할수있었던 것도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었다。

종 교 서 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886-1198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봉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홍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소머스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전화 : 267-2292

미시사가한글학교
전화 : 822-6438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김미영한국민속무용연구소
전화 : 499-5079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 자개농 에 관해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자개농, 약장등 수리도 하 실 수 있는분 구합니다.
전화 : 486-0397 (Mrs. Kim)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치과에서 일하실 Receptionist구함
전화 : 233-9454, 781-9591, 535-2798

한국음식에 조예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537-0432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
전화 : 922-3061 Mr. 김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 630-2450 (Mr. Cho)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 도너쯔 Shop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근무시간 : 11:00a.m.-7:00p.m.

◆Variety Cashier 유경험자 구함.
토, 일 근무 12:00-10:00 P.M.
Young × Eglinton 전화 : 482-4088 481-2172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곡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DONUTS SHOP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실 여자분(Full Time)구함
전화 : 531-2689

Juice Bar Helper (Full Time)구함
전화 : 438-0403 7시이후 연락바람. Mrs.유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유경험자 Cashier 구함
학생환영(Kingston Rd.×Woodbine)
전화 : 691-3666

Full Time 캐쉬어 구함
전화 : 923-9948 Mrs. 정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Mall 속에 있는 Ice Cream가게와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곡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1184 Weston Rd.

신체 건강한 남자분으로서 피아노 수리, 재생, 조율등 전반적인 테크닉을 배우실분 구함.(Full Time)
Start Pay : $3.50(시간당). 전화 : 783-6871

1) 배우실 분
컴퓨터식자 · 사진식자 (한글타자 경험자면 더 환영)
2) 학생 15~24세, 풀·타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1

3월말경에 Dundas와 Bloor사이 로상에서 본인 입동호의 여권을 분실하였기에 유감스럽게도 여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바 혹 이름으로라도 분실된 여권임을 찾을수있을까 하여 광고를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연락처 : 536-4039

구 직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Max Milk 또는 Becker, 매니져가 필요하신분 연락바람.(많은경력있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일할 수 있음. 265-0436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게 팝니다.
전화 : 656-5358(저녁 8시이후)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전화 : 699-4804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스카브로에 있는 세탁소 급매
Asking Price : $6,300
Call Nick. (R)439-7796. (B)751-6850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저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 (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성업중인 세탁소 급매
(Dry Cleaning Plant)
전화 : 922-9847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곡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1) 그로서리 (주매상 : $7,500) 아스킹 : $70,000
2) Fish & Chips (Yonge×Bloor) 아스킹 : $99,000
3) 건물 (Bloor × Christie) 아스킹 : $159,000
4) 건물과 식당 (Dundas-Hwy10) 아스킹 : $329,000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481-3443.

Pape Subway 근처에 좋은 장소의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아스킹 : $62,000 주매상 : $8,000
Carol Chao 596-8681. Julius Aloi Real Estate.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곡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 가격 : $39,500 Rent : $328
낮 1-519-439-8279(R) 오후 1-519-681-7631(B)

TWO DOOR POP COOLER 팝니다.
전화 : 438-1528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Tuck Shop) 전화 : 842-2917

세탁소 팝니다. 그리고, Shoe Repair, Lottery Tickets, Rug Cleanig and Laundry
461044 Ontario Ltd. 전화 : 595-1570

좋은 위치에 있는 조그만 가게 Lease를 팝니다.
Smoke Shop이나 Dry Cleaning Depot, 하기에 적당함,
혼자서 하기에 알맞음. 아스킹: $3,100 전화: 431-1358

일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윤좋은 과일및 꽃가게를 급매.
주일은 휴업이고 6일 주매상 현재 $4,000~$4,500.
계속 주매상이 오르고 있으며 장비값만 $50,000이상임.
아스킹 : $48,000. 관심있으신분은 O·K오토바디 김희삼에게 연락 주세요.(Carlaw×Gerrard)
전화 : 251-9889(B) 242-4551(R)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하우스 렌트

2 Bedrm-렌트 King+Dufferin
전화 : 536-4250(오후6시이후) 535-1251(낮)

집 독채 세놓읍니다.
방4개, 지하실 꾸며져 있음.(세파드+파머시)
전화 : 757-6334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 8 PM. 토요일 10AM- 6 PM
880 Ellesmere Rd.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조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오시라! 보시라!
정상미녀의
축제를…

●후라이보이 곽규석
원맨쇼의 제1인자
익살과 재치의 명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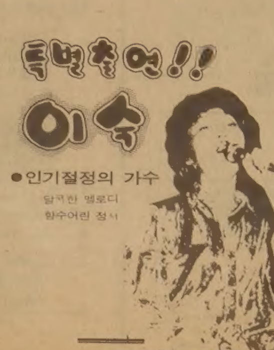
●만능연예인 피세영
연극배우·성우·디스크자키

출연진

사회 : 곽규석, 피세영
노래 : 이숙, 서유미
악단 : 코리언·키튼스
(6인조 악단)

●격정적 선율의 신나는6인조악단
=조상국(드럼·색스폰)·조경희(베이스)·박정자(기타)·전미숙(키보드)·김경분(올갠)·장남홍(싱거)

특별출연!!
이숙


●인기절정의 가수
달콤한 멜로디
향수어린 정서

서유미
●히트송"눈이내리네"
71년도 한국가요 신인가수상 수상
뉴욕인에게서 활약중인 육체미 가수

출전미녀

석인형, 김선미, 권미리,
이은주, 이사샤, 이정숙,
함승희, 안주영, 윤혜련,
이용원, 박은희.

진행과정

하오 6시~7시—칵테일
〃 7시~8시—디너(만찬)
〃 8시~10시30분—미인대회
〃 10시30분 ~11시—연예인쇼
〃 11시~11시30분—심사발표및 시상
〃 11시30분~1시—댄스파티

상품기증

● 한국왕복항공권(제일여행사)
ㅇ.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ㅇ. 진주목걸이,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셑트(미도파)
ㅇ.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불란서제) (블루아안경점)
ㅇ.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ㅇ. 금일봉 $150 (제일여행사)
ㅇ. 홈·셑트($100 상당)(블루아 하드웨어)
ㅇ.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ㅇ. 금일봉 ($100) (황재필)
ㅇ.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ㅇ.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ㅇ.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 샘손나이트 화장품케이스 1개($100상당)
(거북이선물센타)
● 코다 칼러 버스트·카메라 1대(빅·세븐 선물센타)
● 11×14 사진틀 포함. 진 독사진($150)(새한칼라)
● 에코시가구점 안락의자($200상당)
● 실업인협회 $300

입장권 예매처

중부 :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
535-2377
동부 : 서울식품
동부한국식품
서부 : 한발식품
삼록식품
※당일 현장서도 판매함.

일시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신예 仁川大 突風

大學축구 강호成均館大꺾어 파란

1년생 金東洙 눈부신활약

創團 1개월만에 勝利만끽 2-1

建國·慶尙、東國·仁川體는 1-1로 비겨

◇맨땅의 肉彈戰 누가먼저 반칙을했나。 7조의 東國大와仁川體大선수가 먼지를 날리며 서로엉켜 쓰러지고있다。 두팀은 후반서 골을 주고받아 1-1로 비겼다。

신생 仁川大가 강호 成均館大를 물리쳐 이변을 일으켰다。 지난달 창단된 仁川大는 17일 孝昌구장에서 속개된 춘계대학축구연맹전 4일째 3조경기에서 成均館大를 2-1로 제압、1승1무를 기록、결선고지에 한발짝 다가섰다。

仁川大는 강호 成大를 맞아 강인한 투지를 발휘、전반22분 골문왼쪽에서 HB權寧鉉이 HB金東洙(1m75·1년생)가 센터링한 볼을 논스톱으로 때려 선제점을 따냈다。

仁川大는 후반들어 成大의 기습공격을 받아 3번의 위기를 모면한뒤 후반30분 金東洙가 1점을 뽑아내 승리를 굳혔다。

成大는 전반에 劉在永등이 2번、후반에 金榮秀등이 3번등 슛을 날렸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후반서가 까스로 1골을 만회했다。

한편 3조 建國大와 慶尙大의 대전서 전반40분 慶尙大의 裵基源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建大의 魚龍國에게 골을 허용、1-1로 비겼다。

또 7조의 東國大는 仁川專門大와의 대전서 후반2분 孫七模가 헤딩으로 1점을 빼았으나 23분께 仁川專大의 李夏鏞이 1점을 만회、역시 1-1무승부가 됐다。

한편 이날 建國大 경기장서 열린 4조 明知大와 公州師大의 경기는 明知大가 후반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얻어 승리했다。

◇제4일
▲3조
건국대(2무) 1 (0-1 / 1-0) 1 경상대(2무)
인천대(1승1무) 2 (1-1 / 1-0) 1 성균관대(1무1패)
▲4조
명지대(1승) 1 (1-0 / 0-0) 0 공주사대(1무1패)
▲7조
동국대(1승1무) 1 (0-0 / 1-1) 1 인천전문대(1무1패)

윔블던 不參선언 보리에 번복권유

英테니스클럽

【윔블던(英)16日AP=聯】 全英테니스클럽회장인 브라이언·버너·힐은 16일 차기 윔블던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비외른·보리가 마음을 바꿔 이 대회에 참석해줄 것을 권유했다。

"體典、五輪式으로"

曺체육회장、문제점 事前點檢위해"

曺相鎬대한체육회장은 16일 "오는10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국체전은 85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대회를 유치한 이후 처음 맞는 체전으로 의의가 크다。

이번 체전의 경기진행방식을 올림픽의 경기방식과 같이 운영하는 시범경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체전 … 사상 점검을 위해 15 … 이번 63회 경남체전에서는 입장식·개막식·경기방식·시상식등 운영전반에 걸쳐 올림픽방식을 채택하고 앞으로 개최될 전국체전을 올림픽방식으로 운영하며 88년올림픽 개최시 야기될수있는 문제점을 사전에점검하겠다"고 밝혔다。

日、不參결정

臺灣소프트볼

【東京16日=聯】 日本소프트볼협회는 오는 7월 臺灣에서 개최되는 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에 中共에이어 두번째로 불참키로 결정했다。

동협회는 16일 "현 상황으로 볼때 臺灣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소프트볼대회는 국가와 국기를 사용치 않는다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방식이 채택될 보증이 없다"고 밝히고 이날까지 마감으로 돼있는 臺灣대회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中共은 지난 13일 이대회의 불참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金柱憲 同打선두

臺灣 呂西鈞과 215打

亞洲 서키트골프

17일 서울컨트리에서 속행된 아시아 서키트골프 9차전 3일째 3라운드 경기에서 金柱憲은 이븐 파인 72타에 기록、토틀 1언더 2백15타를 기록、이날 자유중국의 呂西鈞과 함께 2백15타로 공동선두에 나서 주최국의 체면을 유지했다。

한국프로들은 계속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그러나 아마인 金柱憲이 분전、… 73타를 기록、金柱憲과함께 2백15타로 동타선두에 나섰다。

최종일 경기는 金柱憲과 呂西鈞을 비롯한 자유중국세가 패권을놓고 열전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멕시코의 알라콘과 日本의 이소무라는 2백16타를 기록、동타 3위를 마크했으며 2라운드까지 선두였던 … 타로 선두에 나섰다。

美國의 서피는 82타로 크게 부진、중위 그룹으로 처졌다。

한국프로들 가운데서는 林鎭漢이 2백22타로 동타13위、韓長相과 朴時燮은 2백23타로 동타15위에 머물러있다。

81歲의 濠洲할머니

골프서홀인원 기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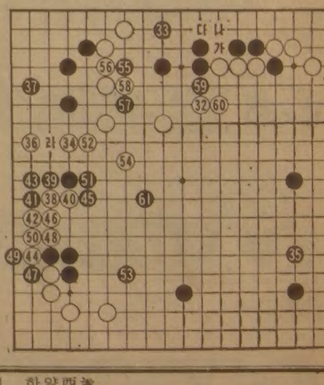
【애들레이드(濠洲)AP=聯】 금년81세의 케이·카어니할머니(濠洲)가 16일 노드애들레이드 골프 코스에서 홀·인·원을 기록、濠洲서 홀·인·원을 기록한 가장 나이많은 여성골퍼가 됐다。

申浩澈 유화개인전

서양화가 申浩澈씨의 개인전이 19일부터 24일까지 그로리치화랑에서 열린다。 弘大미술교육학과를 졸업、75년부터 5차례 앙데팡당전에 참여했던 申씨의 첫개인전。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3譜 32~61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徐能旭〈1勝3敗〉
黑(6段) 姜哲民〈0勝5敗〉

白32로 「가」자리를 뚫고서 黑「나」白「다」면 오른쪽 黑2점은 수중에 넣을수있으나 첫째 「물건」이 작고 후수가된다。 더우기 상변黑은 그대로안정되어 白의공격대상에서 벗어나버린다。 따라서 숫제 32로외곽을 봉쇄한 것인데 이점이 멀리 아래쪽일대에 영향을 주는것도 사실。

이제 黑33은 불가피하다。 徐6단은 예서부터 두는속도가 빨라졌다。 白34로 갈라진 수가 1분、黑35도 1분。 이두수는 소위 맞보기인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 白36은 關鍵을 찌른 강수였다。 이것으로 위아래의黑을 동시에 노리게 되었다。

『역시 이쪽을 지켜야겠군』 하고黑37。 물론 절대적인 지킴수다。 이래서 아래쪽 노림수인 白38에 침입했는데 黑39때 白40으로 밀어올린 수가 또 신랄했다。 이때문에 불가불 제1차접전이 발발、이하黑51까지 삽시에 진행되었다。 피차간 어려운장면인데도 거의 노타임이었다。

中盤戰은 速棋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白40으로 43자리를 젖히면 黑이 40의 곳을 막게되어 白이 불만이다。 또 白44를 45쪽으로 뻗어나가면 黑이 50자리에 모불임하는 상용수법으로 건너가버리니 이것도 白이 불만。 따라서 44이하50은 전문가의 경우 꼭 이렇게 둬야하는 필연의 과정이다。

다만 黑51은 「라」자리에 끼워 着點인 白36을 끊었어야 두터울것 같은데、黑51로 白52를 응수케하고 53의곳에 선착할 예상이었는듯。 그런데 이왕이면 즉시 61에 뻘 자리인데 黑57로 늘여다본것은 공연한 손해수、이해가 안가는 수법이다。 【一凡】

流星의 賦

고독한 英雄 ⑯

<361>

李炳注 作
李友慶 畫

홍계남이 군사를 광교산(光敎山) 속으로 이동시켜 놓고、다음의 작전을 연구하고 있을무렵 소서행장(小西行長)을 비롯한 왜장(倭將)들은 군사를 이끌고 평양을 지호지간(指呼之間)으로 바라보는 곳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입금은 당황하여 어찌 할 줄을 몰랐다。 참피스런 장면이 연속되기만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경기도에서 이일이 『신이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행재지로 가고자하니 원하옵건대 조정에서는 평양을 고수하시옵고 다른 계책을 마시옵소서』하는 장계를 보내왔다。

이 장계를 읽고 용기를 얻은 조신(朝臣)들은 죽기를 맹세하고 평양을 지킬 결의를 했다。 결의가 있은 끝에 입금이 우의정 유홍(兪弘)에게 일렀다。

『경이 평양에 남아 평양을 지키시오』

유홍은 당황하여

『호조판서 이성중을 부장(副將)으로 임명해 주십시오』하고 아뢰는가 하면

『신은 원래 몸이 약하오니 대임을 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며 우물쭈물 했다。

이때 좌의정 윤두수가 입금이 평양을 떠남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입금의 얼굴은 창백했다。 뒤에 정철이 윤두수에게 말했다。

『좌상의 말씀은 옳소만 아까 상감의 안색을보지 않았소。 그런 처지에 어찌 상감을 만류할수가 있겠소。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될 일이나 하오。 우리가 일찍이 서울을 고수할 계책에 철저했더라면 오늘 이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런 고루한 말은 하지도 마시오』

하고 윤두수가 고함을 치니 정철이 말을 못했다。

그런데 가소로운 것은 이일이었다。 자기가 가서 평양을 지키겠다고 큰소리를 친 이일이 평양에 나타났을 땐 불과 패잔병의 몰골이었던 것이다。 유성룡의 『징비록』은 이렇게 전한다。

『이일이 평양에 도착했다。 일은 충주에서 패하여 강원도를 거쳐 전전하며 행재소에 도착한 것이다。 이때 재장(材將)은 서울에서 남하하여 흑 …을 쫓고 흩는 도주하여 한사람 일꾼에게 호통하는 자가 없었다。 적이 곧 처들어 온다고하여 인심은 흉흉했다。 일은 무장으로서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패주(敗走)의 몸이긴 했으나 그가 온다고 듣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런데 이일은 상민(常民)들이 쓰는 평량자(平凉子)를 쓰고 흰저고리 바람으로 짚신을 끌고 왔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해있어 사람들은 그 몰골을 보고 탄식했다。 나는 평양 사람들이 당신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꼴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고 남색의 첩리(帖裏)를 주었다。 제신들도 각각 어느 사람은 종립(鬃笠)을、어느 사람은 은정자(銀頂子) 채영(彩纓) 등을 내주어 복색만은 갖추게 되었는데 신은 여전히 짚신이었다。 나는 웃으며 『금의(錦衣)에 짚신은 어울리지 않군』했더니 모두를 웃었다… 이윽고 적이 대동강 저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일로 하여금 강얕은 곳을 지키게 했는데 살펴보면 이일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윤두수로 하여금 그의 출발을 재촉케 했다。 그러자 일은 겨우 출발했다…』

YOUNG SOOK 'S
보석상
ㅇ각종보석
ㅇ다이아몬드 품질보장
ㅇ최저가격
ㅇ뉴 디자인
ㅇ보석개조 교환매매
ㅇ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2ND CLASS MAIL NO. 5248